



지난 주말에는 매서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캠퍼스를 화사하게 밝혀주던 벚꽃이 많이 떨어지면서 생채기와 아쉬움이 남았지만, 새로 돋은 나뭇잎들과 꽃잎들이 머금은 물방울들은 곳곳한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선도대학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학, 경북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참가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 대구광역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님,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국가인원위원회, 교육청, 경찰청과 대학,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통계치를 보면,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나라라도 100점 만점에 20점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4년째 바닥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몸서리쳐지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 청소년들을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어라 말을 이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의 심각한 현실을 다루는 오늘 토론회는 만시지탄의 감회를 떨칠 수 없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임

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결과들이 현장에까지 이어져 우리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함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는 공감과 배려를 배우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밑거름을 만드는데 우리 경북대학교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하며, 그 범위와 수준은 향상되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 역시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두려움에 떠는 청소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호 협력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남몰래 혼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자취를 감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를 주최하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과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노진철 학장님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님,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현장 활동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진리, 긍지, 봉사를 교시로 삶에 대한 집중된 투자와 세계를 향하는 지식선도대학으로 국제경쟁력을 지닌 세계명문대학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문의 요람으로서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자기경쟁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인류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과 자살 등 생명윤리의 학문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 및 자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 지역에서 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발생한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의 자살사건 이후 수많은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2년 안동과 영주의 학생 자살사건에 이어 최근 3월 경산 투신 고교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높아졌고,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

살 예방종합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등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과 자살이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폭력과 자살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생명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식의 산실인 경북대학교, 대구·경북 교육청 및 경찰청과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계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총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장 **현 병 철**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지난 2011년 12월 사건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교폭력과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보담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도 학교와 선생님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이제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먼저 맞춤형 위기학생 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의 실천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진료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으며,

다음은 심력개발 교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교육의 실천으로 문화·체육·수련활동을 통한 감성교육 강화, 놀이 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바탕

으로 한 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생명경시 풍조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은 학교만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 각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학부모님께 학생의 성장 시기에 적합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가정에서부터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학생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생명을 경시하는 학생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될 때는 허탈한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이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에서 학교폭력예방과 자살 문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10.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



Program

- 일시 : 2013. 4. 10(수) 13:30~18:30
- 장소 :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3층 국제회의실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제1부 : 등록 및 개회식 (13:30~14:30) | | |
| 13:30~14:00 | 등록 및 접수 | |
| 14:00~14:30 | 개 회 식 | 진행사회 : 이석준 과장(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 | 개 회 사 | 함인석 총장 (경북대학교) |
| | 인 사 말 |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
| | 축 사 | 우동기 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
| 제2부 : 주제 발표 및 토론 (14:30~18:30) | | 사회 : 노진철 학장 (경북대 사회과학대) |
| 발 표 | | |
| 14:30~15:00 | 제1주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 발제자 : 안석모 국장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 | |
| 15:00~15:10 |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 발표자 : 김사철 교육국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 |
| 15:10~15:20 | - 발표자 :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경북북도 교육청) | |
| 15:20~15:30 | - 발표자 : 조용선 과장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
| 15:30~15:40 | - 발표자 : 최주원 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
| 15:40~16:10 | 제2주제 : 학교폭력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 - 발제자 : 문재현 소장(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
| 16:10~16:40 | 제3주제 : 청소년 자살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 - 발제자 : 장문선 교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 |

| | | |
|-------------|---|----------------------------|
| 16:40~17:00 | 휴 식 | |
| | 중 합 토 론 | |
| 17:00~18: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 : 신성자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김정금 정책실장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대구지부) - 토론자 : 임전수 교사 (대구능인중학교) - 토론자 : 황준원 교수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 박태환 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토론자 : 윤석준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 토론자 : 이발래 팀장 (국가인권위 법제개선팀) | |
| 18:20~18:30 | 폐회 및 안내 | 진행사회 : 이석준 과장(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 개회사 : 함인석 총장 (경북대학교)
- 인사말 :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 축 사 : 우동기 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주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1

- ▶ 안석모 국장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15

- ▶ 김사철 교육국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17
- ▶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경상북도 교육청) 35
- ▶ 조용선 과장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57
- ▶ 최주원 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61

제2주제 : 학교폭력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 69

- ▶ 문재현 소장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제3주제 : 청소년 자살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85

- ▶ 장문선 교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 | |
|--|------------|
| 종합토론 | 109 |
| ▶ 신성자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11 |
|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43 |
| ▶ 김정금 정책실장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대구지부) | 149 |
| ▶ 임전수 교사 (대구능인중학교) | 157 |
| ▶ 황준원 교수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163 |
| ▶ 박태환 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169 |
| ▶ 윤석준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 175 |
| ▶ 이발래 팀장 (국가인권위 법제개선팀) | 185 |

제 1 주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안석모 국장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안 석 모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야기하는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늦었지만 학교폭력에 의해 희생된 학생들의 불행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자살, 그리고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그 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북대학교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 과거를 성찰해 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학교폭력이 없고 가엾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최근의 학교폭력은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에서 정서적, 언어적, 사이버 폭력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신체폭행’(25.8%), ‘괴롭힘’(21.7%), ‘집단따돌림’(21.2%), ‘금품갈취’(12.9%), ‘언어폭력 및 협박’(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언어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위에서 이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집단따돌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5.7%(남학생 3.9%, 여학생 11.8%)였으며, 또래들로부터 언어폭력 경험은 57.9%(남학생 34.3%, 여학생 23.6%), 성적 폭력은 16.3%(남학생 10.4%, 여학생 5.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을 조사한 결과(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피해학생의 57.5%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으며, 그 사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1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해를 한 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1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2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3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할 사항은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1,059명중에 과반수 이상(62.0%)이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함께 말림(17.1%)’, ‘선생님께 알림’(9.9%), ‘부모님께 알림’(3.1%), ‘경찰에 신고’(1.0%), ‘상담센터에 상담’(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을 보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4.0%)의 순으로 방관을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학교폭력이 심각하며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 즉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 강제로 빵 심부름을 시키는 ‘빵셔틀’ 등 신종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폭력에 둔감한 상태에 빠진 경우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과반수 이상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과반수 이상이 보복이 두려워 방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기존 학교폭력 보호체계에 대해 학생들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

최근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학생 자살 소식도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자살사건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지능화, 사이버화 추세 등은 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켜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교육 당국 및 경찰 등 학교폭력 관계자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부심(腐心)해 왔습니다. 2010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자 수는 7,823명이며, 피해학생 10명 중 3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KBS, 2011. 2.)¹⁾ 2011년 발생한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2년 안동과 영주의 자살 사건에 이어 최근 3월 경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또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마련(2005)’,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2004년)’,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마련(2012년)’ 등을 마련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외상이 증거로 남는 물리적 폭력 유형에서 정서적, 언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유형으로 학교폭력의 추이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틀에서 볼 때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쟁문화, 대학입시에서의 무한경쟁, 이에 따른 학교 내의 학생의 서열화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성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족한 교육환경 및 교육체계, 수준별 이동수업, (예체능)집중이수제 등 현실적으로 학생을 경쟁으로 모는 교육 제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에다 학교와 사회에서 복종적·수동적이기를 기대·강요받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통제적·강압적인 학생지도, 국가·사회·학교·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학생의 폭력이나 부모·교원의 자녀나 학생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일이거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묵인해온 관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중 ‘인권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예방대책에서 재 인용, 신라대 전영주 교수, 2012. 4. 6.

학교폭력의 문제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수면장애, 등교거부,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적 문제를 호소합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응답한 내용 중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와 ‘많이 고통스러웠다’가 60.8%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자살생각을 ‘지속적으로(10회 이상)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도움을 ‘요청’(5.7%)한 학생보다 ‘요청하지 않음’(9.3%)의 비율이 높아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공격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이러한 특성은 전두엽의 실행기능의 결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해학생 역시 치료와 심리상담을 요하는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존재하기에 가해학생의 정신건강적 측면 또한 중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 방관자(bystander)로 우리가 통상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학생에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토대로 살미발리(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이 여섯 가지로 분류한 학교폭력 역할유형은 가해자, 조력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 초·중·고등학생 1,822명을 대상으로 역할유형을 분석한 연구결과²⁾ 가장 많이 차지한 범주는 방관자(60.8%)였으며, 다음으로 방어자(28.2%), 조력자(12.8%), 강화자(9.5%)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해자(5.0%)와 피해자(5.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가능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실태,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해보

2) 엄명용, 송민경 (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 사회복지학, 63(1), 241-266.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 주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쏟아냈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폭력을 2차원적 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 선도자, 피해자 치유만으로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만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이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방어자도 있고 또한 이에 대해 협조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문제만도 아닙니다.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여건과 환경 조성이 미비한 점도 있고,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 특히 우리 사회의 무관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 등의 미비, 또한 학교나 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생활지도, 학교 및 교사의 대응 방식의 미숙, 가정과 우리 사회의 무관심 등도 학교폭력이 지속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1년 말부터 이 문제에 좀 더 분석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11명으로의 학교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을 발족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지난 2012년 7월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교육당국에 함으로써 소정의 결과도 도출하였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

우리는 학교폭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적 요법에 불과할 뿐 문제의 핵심에 따른 대안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 실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야하는 절실함에 목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존중,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예방과 대

응 등 5개의 주제에 대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마련하여 52개 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요약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권고의 주요사항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인권 존중’을 포함시키고, 학생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여 학생의 이해관계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학생 지도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치유와 회복적 차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 3.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대구시교육청 교육감과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구교육청 관내에 ‘인권체험관’을 공동운영하는 방안 등 학교인권교육의 협력에 지역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위 대구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롤 모델(role model)로 하여 다른 시·도 교육청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 기반을 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는 금년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을 담당할 인권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학교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교재를 제작·보급하고,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전국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이미 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종합정책 권고’가 학교 현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원회 인권교육 정책의 노력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정부,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권과 인권의 보장이 체화되고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권’, ‘인권교육’, ‘민주적 인권공동체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의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 측면에서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또 실제로 교사들이 충실히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셋째,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구조와 문화가 전반적으로 인권친화적 토대 하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틀 마련, 즉 기본적인 인권 제도, 법령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제안에 근거해 살펴볼 때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위 권고가 조금은 앞선 생각일 수 있고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 경북대학교 등을 포함한 학계 전문가, 인권활동가, 현장 선생님 등이 머리를 맞댄다면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청소년의 생명존중, 자기존중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인권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정책권고 요약 : 붙임

< 붙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정책권고 요약

| 구분 | 권 고 | 피권고기관 |
|---------------------|---|---------------------|
| I. 인권교육의 제도화 | | |
| 1.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 I-1-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인권가치를 포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부분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을 도야하고...” 로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I-1-2. 학생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부분을 “학교교육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성 함양 및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으로 수정 | |
| | I-1-3.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
| | I-1-4.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기준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항목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
| 2. 학생 인권 교육 강화 | I-2-1. 교과서에 실천사례 중심의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I-2-2.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등 기존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 |
| | I-2-3. 중학교 선택교과와 고등학교 교양교과에서 인권과목을 확대 개설하여야 한다. | |
| | I-2-4.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
|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 I-3-1.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증진 및 인권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교직교양, 교직이론, 전공교과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론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I-3-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교원연수기관은 각종 자격연수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거나 별도 독립적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I-3-3. 교원임용시험의 교원 평가 기준에 교원양성과정 중 인권과목 이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구분 | 권고 | 피권고기관 |
|---|--|----------------------|
| 4.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 I-4-1.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
| | I-4-2.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에게도 전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I-4-3.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교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
| II. 학생 인권 증진 | | |
| 1.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 II-1-1.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학생인권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2.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II-2-1.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과 같은 학생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보장 : 의견 수렴은 물론 의견수렴 방법, 그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3. 학생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II-3-1.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
| 4.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구제 보장 | II-4-1.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예방지침 및 구제제도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III. 교원의 교권 존중 | | |
|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 III-1-1. 「초·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III-1-2. 생활지도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
| 2.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 III-2-1.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가칭)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3. 교육과 혼육에 | III-3-1.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구분 | 권고 | 피권고기관 |
|--|---|---|
|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Ⅲ-3-2.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장관 |
| | Ⅲ-3-3. 집중이수제교육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
| IV. 차별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 |
| 1.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IV-1-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벌’ 허용방침이 처벌 존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IV-1-2. 아동권리 인정·학습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훈육방법’의 선진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 IV-1-3. 교원이 교실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훈육방안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2.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 IV-2-1.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IV-2-2. 상·벌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의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3.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 | IV-3-1. 현재 적용 중인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IV-3-2.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체벌대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 IV-3-3. 체벌대체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체벌’을 시사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인권친화적 대체 용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
| V.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 | | |
| 1. 교육 주체간의 소통 강화 | V-1-1. 교원·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1-2. 학부모의 학교접근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유급휴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행정안전부장 관(공무원 대상) 고용노동부장 관(근로자 대상) |
| | V-1-3. 학생의 자율적 주체적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시·도교육감 |
| 2. 학교폭력 예방 예방프로그램 의 강화 | V-2-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시·도교육감 |

| 구 분 | 권 고 | 피권고기관 |
|----------------------------------|---|-----------------------------|
| | V-2-2. 예능과 스포츠 과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2-3.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 전체학생을 위한 참여형 예방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 |
| | V-2-4. 정규직 전문상담교원을 학교 내 1인 이상 배치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 |
| | V-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 3. 교원의 역할 강화 | V-3-1. 교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생활지도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3-2. 신규임용교원과 생활지도교원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한다. | |
| | V-3-3. 학교폭력 대응에서 전문상담교원, 위(Wee) 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 |
| 4.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 V-4-1. 학교폭력의 시간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초기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4-2.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감 |
| 5.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V-5-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 등 인권침해 관련 학생의 치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5-2. 위 스쿨(Wee School)을 확대하고, 치료형 기숙학교 목적의 대안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5-3. 피해·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등 치유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감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6.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 V-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학생의 직·간접 참여 보장 |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
| | V-6-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
| | V-6-3. 사생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최소 수집, 민감정보처리 제한 고려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 |
| | V-6-4.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목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 발표자_김사철 교육국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 발표자_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경북북도 교육청)
- 발표자_조용선 과장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발표자_최주원 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김사철 교육국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I. 학교폭력 발생 및 학생 자살 현황

1. 2011- 2012 학교폭력 발생(심의 및 조치 현황)

| 연도별 | 발생건수 (심의 건수) | 가해학생수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 | | | | | | | |
|------|--------------------|-------|-----|-------|-------------------------|----------------|----------------|----------------|----------------|----------------|----------------|----------------|----------------|
| | | 남 | 여 | 계 | 1. 서면 사과 | 2. 접촉 금지 | 3. 교내 봉사 | 4. 사회 봉사 | 5. 특별 교육 | 6. 출석 정지 | 7. 학급 교체 | 8. 전학 조치 | 9. 퇴학 처분 |
| 2011 | 653 | 1,741 | 529 | 2,270 | 383 | 231 | 807 | 233 | 143 | 229 | 6 | 38 | 3 |
| 2012 | 1,216 | 2,250 | 877 | 3,127 | 888 | 363 | 625 | 361 | 235 | 235 | 27 | 81 | 6 |

2. 2012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구분 |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율 |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율 |
|------|----------------------|----------------------|
| 조사기간 | 2012.01.18.~02.20. | 2012.08.27.~10.12. |
| 서울 | 14.23 | 10.20 |
| 부산 | 11.18 | 8.59 |
| 대구 | 9.10 | 4.73 |
| 인천 | 10.35 | 6.28 |
| 광주 | 13.58 | 9.73 |
| 대전 | 12.13 | 8.91 |
| 울산 | 12.54 | 9.00 |
| 세종 | 해당없음 | 10.05 |

| 구분 |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율 |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율 |
|-------|----------------------|----------------------|
| 경기 | 11.73 | 7.88 |
| 강원 | 15.07 | 11.01 |
| 충북 | 10.40 | 7.41 |
| 충남 | 14.78 | 11.11 |
| 전북 | 12.61 | 2차 조사 불참(자체조사) |
| 전남 | 10.84 | 7.54 |
| 경북 | 11.20 | 8.93 |
| 경남 | 13.53 | 8.61 |
| 제주 | 12.07 | 8.41 |
| 전국 평균 | 12.29 | 8.48 |

3. 3년간 학생 자살현황 및 2011년 청소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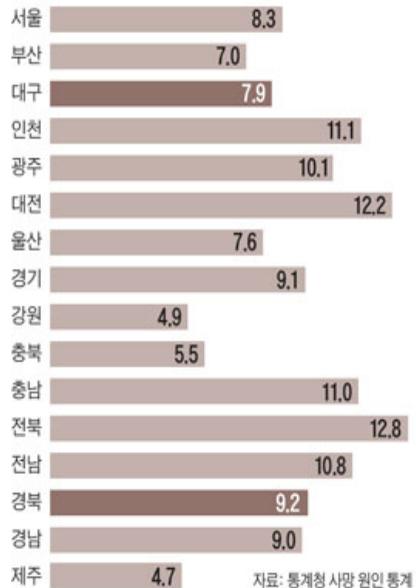
○ 3년간 자살학생 현황(2012년 9월말 기준)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9월 | 계 |
|----|-------|-------|---------|-----|
| 서울 | 27 | 18 | 20 | 65 |
| 부산 | 18 | 12 | 6 | 36 |
| 대구 | 8 | 9 | 8 | 25 |
| 인천 | 10 | 14 | 9 | 33 |
| 광주 | 5 | 10 | 8 | 23 |
| 대전 | 4 | 7 | 5 | 16 |
| 울산 | 6 | 4 | 2 | 12 |
| 경기 | 26 | 24 | 13 | 63 |
| 강원 | 9 | 5 | 4 | 18 |
| 충북 | 5 | 6 | 4 | 15 |
| 충남 | 5 | 11 | 5 | 21 |
| 전북 | 3 | 9 | 4 | 16 |
| 전남 | 3 | 3 | 6 | 12 |
| 경북 | 9 | 9 | 8 | 26 |
| 경남 | 8 | 8 | 6 | 22 |
| 제주 | - | 1 | - | 1 |
| 계 | 146 | 150 | 108 | 404 |

2011년 전국 청소년 자살률

지역별 15~19세 청소년의 자살률(2011년)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몇명이나 자살한지를 계산한 값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구와 경북의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은 각각 7.9명과 9.2명이었다. 같은 시기 서울은8.3명, 경기도가 9.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인천(11.1명), 광주(10.1명), 대전(12.2명), 충남(11명), 전북(12.8명), 전남(10.8명) 등 전국 대부분이 대구·경북 지역보다 높았다. 2008년 대구의 청소년 자살률이 12.8명으로 잠시높았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해는 대체로 전국 평균 수준(8~10명)이었다.

- 2013.03.23.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II.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

1.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방향

1) 필요성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 부족
-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및 학생생활지도 교권 추락
- 자존감 상실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미약
-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학생문화
-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 미비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 전략
 - [교육과정] 지식 위주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 [생활지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생활지도로
 - [정신건강] 자존감 회복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으로
 - [폭력대처] 관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 [교육주체] 학교만의 교육에서 지역공동체 교육으로

3) 주요실적

가. 인성 중심 교육

- 1) 행복교육 추진
- 2) 교실변화로 학생들 마음의 문 열기 : 학생들의 마음 파악하기
 - 교사와 학생 소통 활성화
- 3) 사제동행 행복 시간 운영 : 매주 월요일 담임과 함께하는 시간 운영
 - 예산 활용 : 초등학생 1인 4,000원, 중·고생 1인 6,000원 지원
 - 연간 소요예산 : 1,813,300천원
 - 사제동행 활동 운영 장학자료 보급(1학년별 1부씩 배부)
 - 초등용 「학교가 좋다, 선생님이 참 좋다」 (7,000부)
 - 중등용 「우리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7,000부)
- 4) 사제동행 체험활동 운영
 - 목적 : 학교 밖에서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및 캠프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여건 지원
 - 사제동행 스포츠 체험활동
 - 프로야구 : 야구는 내친구(삼성라이온즈와 MOU)
 - 대구 홈경기 시 학생 및 인솔교사 무료 관람 : 66경기 21,120명 참가
 - 프로축구 : 대구월드컵축구장 연간 3회 무료 관람(대구 FC와 MOU)
 - 학생 및 학부모(학부모 봉사단) 참여 : 102,600명
 - 사제동행 캠프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숙박하며 소통 확대(학년,동아리별)
 - 대구교육연수원(팔공산야영장) 캠프 : 38개교 1,825명
 - 대구교육해양수련원(포항) 캠프 : 학급 80개교 681명, 동아리 8개교 294명
- 5) 학업 부담 감소 위한 시험 및 과제 지양
 - 초등학생 시험 학기별 1회로 제한
- 6) 전 학교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 전문인력 배치
 - 감성과 소통의 학생 생활지원 서비스로 위기학생 보호 안전망 구축
 - Wee 클래스 : 초, 중, 고, 특수 439개교 중 422개교 설치
 - 전문상담교사(50명), 전문상담사(192명), 학생상담자원봉사자(253명)

- 전 학교 친한친구교실(학교별 대안교실) 운영 : Wee 클래스와 연계
- 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제작·공연
 -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 피다』 제작 공연(대구학생문화센터)
 - 114회 공연, 학교 학생 및 학부모, 종교단체, 시민 등 129,052명 관람
- 8) 밥상머리 교육 : 가족사랑의 날과 주말을 활용, 가족과 소통 확대
 - 전 직원 유연근무제 실시 운영 : 조기퇴근제 및 정시퇴근제 정착
 - 밥상머리교육 홍보 : 지하철 2호선 10개역 플랫폼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형 칼라 와이드광고판 14기 설치(6개월간)
- 9) 가족캠프 운영 : 학생과 가족이 캠프에 참여하여 밥상머리 교육 및 가족간 상호 이해 활성화 지원(숙식 지원)
 - 대구교육연수원(팔공산 야영장) 가족캠프 : 1,548 가족 4,543명 참여
 - 대구교육해양 수련원 가족캠프 : 10개교 877명 참여
- 10)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기회 확대
 - 정기적 상담주간 : 매 학기초(3월, 9월) 1주일간 운영(야간 등 운영)
 - 학교장 핫라인 개설 운영을 통한 학교장과 상담 기회 제공
- 11)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
 - 체육수업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 스포츠 강사(98.4%) 배치
 -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 12) 단위학교별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지속적 실시
 - 특히, 매 학기초(3월, 9월)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교육 강화
- 13)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특히 정보통신망(SNS, 문자메시지 등)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임을 인지하는 예방교육 실시
- 14)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검사 : 연 2회 실시(4월,9월, 초,중,고 전학생)

나.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생활지도

- 1) 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2012.05.15.)
 - 참석 : 학생, 학부모, 교원(학교장 및 교사), 시민 등 1,500여명 참석

- 학생 인권, 학부모 교육권, 교원 학습권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 2) 전 교사 상담 교사화 : 학생 이해 능력 제고
 - 전 교원 상담연수 주기적 이수제도 운영 : 5년 주기 집합 또는 사이버연수 필히 이수(2012년~2016년까지 매년 1,000명씩 60시간씩 상담연수)
- 3) 신규 임용고사 시 학생 상담 능력 반영
 - 2013년도 초등 신규교사 임용 면접시험에 학생 상담 능력 반영
- 4) 감정 코칭 및 수업 코칭 연수
 - 목적 : 교사가 따뜻한 시선으로 학생을 대하고, 학생들 감정을 이해·공감해 줄 수 있는 지속적 연수 실시
- 5) 담임과 함께하는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성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
 - 아침독서 10분 운동, 좋은 시 읽기, 자신의 삶 쓰기 등 선택적 진행
- 6) 인성교육과 연계한 기본 생활습관 지도 철저
 - 매 수업시작 전 1분간 “들머리 인성교육” 실시
- 7) 학생생활규칙의 자치적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의로 학교생활규칙을 개정 및 규칙 준수운동
- 8) 또래상담 활성화로 학생 상호간 공감대 문화 형성
 - 또래상담교사 양성 : 134개교 268명(중123개교·고11개교 교당 2명)
 - 학교별 또래상담사 10~15명 양성
- 9)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 : 부적응 정도가 심한 중학생 대상
 - 중학생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적 예방 대책 운영
- 10)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처분 학생 및 선도 대상의 대안교육 실시
 - 특별교육기관 확대 : 7개(201년) - 11개(2012년)
- 11) 행동·학습치료 바우처제 운영
 - 정서·행동 발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 지원
 - 학습치료 바우처 : 216개 초등학교 357명, 월4회, 357,058천원 지원
 - 여름방학 학습코칭캠프 운영 : 38개교 368명 139,350천원 지원

- 12) 학교폭력근절 및 생명존중을 위한 맞춤형 특색사업 공모제 운영
 - 학교별·지역실정·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 스포츠, 문학, 예능, 봉사, 가족사랑 등 특색있는 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 운영
 - 학교 143개교(초 36교), 중 83교, 고 24교 선정
 - 청소년·사회·종교계·상담기관 등 참여 : 20개기관
- 13) 전 교원 대상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응 능력제고’를 위한 연수
 - 교감 연수 : 3회(2012. 2월, 4월, 10월, 12월)
 - 학교폭력 책임교사 집중 연수 : 4회(2012. 2월, 6월, 7월, 10월, 12월)
- 14) 교원 보호 에듀힐링 프로그램
 - 교직 스트레스 해소와 교권침해 피해 치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설
 - 종교계 힐링 프로그램 : 1박2일 15시간, 8개 과정(272명)
 - 연수원 및 전문기관 힐링 프로그램
 - 에듀힐링 공모형 직무연수 : 초등 10개과정(218명), 중등 2개과정(32명)
 - 연수원 운영 에듀힐링 직무연수 : 6개 과정(168명), 1박2일, 15시간
 - 비종교 전문기관 공동 운영직무연수 : 7개 과정(219명)
- 15) 복수담임제 운영 : 담임업무를 배분으로 학생과 소통 및 상담기회 확대
 - 목적 :초등학교 210개교 1,165학급, 중학교 107개교, 876학
- 16) 교원 보호 및 학생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17) 교육 법률지원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
 -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보호
- 18) 교원긴급전보제도 운영 : 교권 침해당한 교원보호를 위해 전보 조치
- 19) 적극적 교원 업무 경감으로 학생 생활지도 여건 마련
- 20) 학교폭력예방 안전한 학교 대구학생봉사단 운영
 - 중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모니터링 및 캠페인 운영

다. 자존감 회복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으로

- 1) 단계별 대처 : 예방활동 - 위기관리 - 사후대응
 - 단위학교별 및 교육청 단위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자살 시도 및 자살 사안 발생 시 위기학생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정상화를 피하기 위함

2)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및 위험군 학생 치료 지원

가) 시기 : '12. 4. ~ '13. 2.

나) 대상 : 431교(초, 중, 고 전학생, 약 35만명)

○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를 통한 치료 및 조치 현황

| 검사 실시 학생수 | 1차 검사 현황 | | | 2차 검사 현황 | | | 전문기관(3차 심층사정평가) 의뢰 현황 | | | | 병의원 연계 학생 수 | |
|-----------|----------|--------|------|----------|--------|-----|-----------------------|-----|---------|-----|-------------|------|
| | 정상 | 관심군 | | 정상 (관심군) | 주의군 | | Wee센터 | | 정신보건 센터 | | | |
| | 학생수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 349,847 | 279,240 | 70,606 | 20.2 | 54,675 | 15,832 | 4.5 | 4,859 | 1.4 | 5,905 | 1.7 | 1,552 | 0.44 |

○ 고위험군 저소득학생 특성검사 치료 지원 : 1인 600,000원씩

3) 생명존중 강화 실적

가)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이해, 청소년 자살 이해와 위기관리, ADHD 및 우울증의 학생 관리, 상담의 실제 등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나) 각급 학교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다) 신경정신의학회-학교 간 생명존중 예방교육 실시

○ 초·중·고(150개교)에 전문의사(30명) 방문하여 교육

라) 학교 지원 인프라 구축 운영

○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건강사 배치(56교) 및 과밀학교 보건보조 배치(98교)

마) 학교 밖 연계 시스템 구축 : 의학계, 청소년 단체 및 종교단체 등

바)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 상황에 따라 Wee 센터,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

4) 향후 대책

가) 가정의날 운영 및 우리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화목한 가정 가꾸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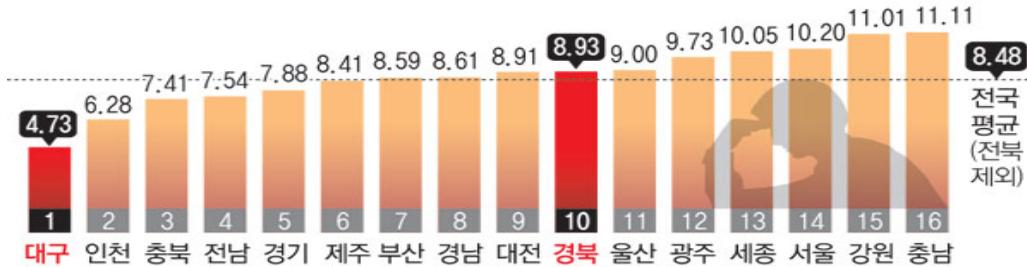
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원역량 제고 및 담임중심의 상담활동 강화

다)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지속적 관리(지원)

라. 관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 1) 학교폭력근절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4개 교육지원청(2012. 6. 13.)에 설치 : 지역교육청 Wee 센터와 연계 운영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위기학생 상담 지원 활동 전개
 - 원스톱지원센터별 학교폭력 근절 맞춤형 원스톱컨설팅 지원단 구성
 - 117학교폭력신고센터(대구지방경찰청 설치, 2012.06.18. 개소)와 연계 운영
 - 학교폭력 신고 체제 전국 시도별로 117로 일원화
 - 범죄 사항은 경찰 직접 수사, 상담 지원은 Wee 센터 연계
- 2)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단위학교별 위기 시 수시 조사(설문)로 맞춤형 대책 운영
 - 1차,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율 전국 최저

지역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단위:%, 자료:교육과학기술부)



- 3)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
 - 가해학생에 대한 철저한 대처로 선도 및 반성을 통한 개선 의식 고취
 - 처벌 위주의 지도는 아님(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과 화해 기능)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 가해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록
 -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문제행동 기록
 - 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균형있게 기재
 - 경미한 조치는 졸업 후 삭제
- 4) 피해자 신분보호 보호 철저

- 피해학생을 Wee 클래스(학교상담실)에 우선 보호조치
- 보복 폭력 방지 : 보복폭력 발생 시 처벌 강화(징계 시 가중)
- 5) 강제 전학 및 재전입 금지 : 가해학생 격리 및 조치 강화
- 6)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안내 : 대구가정법원 판사 학교장 교육(2012.07.02.)
- 7)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청 주관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직무 연수 개설 활성화
- 8) 학교폭력예방 관련 자료(매뉴얼) 개발 보급

마. 학교만의 교육에서 지역공동체 교육으로

- 1) 범시민 ‘폭력 멈춰(STOP) 운동’ 전개
 - 학교폭력 발생 시 개입(“멈춰(STOP)”)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운동 전개
 - 단위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 : 겨울휴가 후, 입학식, 등에 실시
 - 지역기관과 협조 :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6개종단,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지역기업,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 2012. 2. 22.(수) ‘폭력멈춰(STOP) 운동’ 선포식(대구중앙도서관) 및 거리 캠페인 실시
- 2) 학생 순찰 지원을 범시민단체(기관) 협력 관련
 - 대구백화점, 대구은행, 농협, 학교경비업체, 지역별 자율방범협회,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태권도협회, 검도협회 등
- 3) 6대 종단과 학교폭력 근절 및 생명존중 협의회 개최
 - 6대 종단 대표, 대구시장 및 대구시의회의장, 교육감(2012. 1. 26.)
 - 내용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구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채택
 - 6대 종단도 범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동참

로그램, 토요일교실, 예비부모교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 학부모 상담지원 및 맞춤형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 상담운영

- 찾아가는 종교단체 학부모 교육 : 15회운영, 학부모 607명 참여(20여시간)

7) 청소년·사회·종교 및 학원강사 등 대상 지도자 상담 연수 지원

○ 각 단체에서 학생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상담 연수 지원

○ 위기 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 각 회기별 30시간씩 상담 연수 운영 : 종교계(105명), 청소년단체(30명), 사회단체(86명), 태권도지도자(300명), 학원강사(200명) 등 참여

8) 태권도 협회 및 검도협회와 MOU 체결

○ 태권도장 및 검도도장 등에 돌봄기능과 함께 체력증진 프로그램 설치

- 협회는 도복제공, 도장은 강습비할인(태권도 950여명, 검도 207명 지원)

9) 사설학원 내 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 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학생 부담 완화 노력

○ 비행학생·피해학생 발견 시 학교·경찰·학원 등 협력 체계 구축

○ 학원장·강사 대상 학원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연수 프로그램 운영

10)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확대 배치 : 439개교 전 학교에 672명 배치

11) 우리학교 경찰관 지원 활동 강화 : 학교별 2명씩 지정

○ 우리학교 담당 경찰관은 주 1회 이상 학교 순회 방문

○ 우리학교 경찰관 사진 및 연락처를 복도에 게시하여 위기상황 즉시 대처

12) 1교 1사회복지기관과 자매결연

○ 사회복지기관과 학교간 자매결연 (148개교(34%) 참여)

○ 가정과 연계한 봉사활동 추진, 중·고 동아리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자매결연 대상 : 사회복지기관, 양로원, 자원봉사센터, 희망원, 보육원 등

Ⅲ. 2013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대책

“학생이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의무적 실시 : 학기별 1회 이상
- 나. 학교장 훈화(월 1회) 및 담임(매일 조·종례시) 활용
- 다. ‘학교폭력 멈춰운동’(또래중재) 및 ‘학교폭력 방지 서약서’ 쓰기 실시

2.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방안 강구

- 가. 단위학교 :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학교장 핫라인 병행 운영 및 수시 점검
- 나. 우리학교 경찰관 홍보 : 게시 및 연락처 저장(교무실, 담임교사 포함)
- 다. 위기대처 가이드칩(명함형) 소지 : 전학생 및 교직원 1인 1매 소지
- 라. 학교폭력 근절 홍보 포스터 활용 : 학교별 3매(전지), 학급별 1매(B4) 게시
- 마. 교육청 및 유관기관 학교폭력 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전화 및 인터넷 신고 가능(<http://www.117.go.kr>)
 - 안전한 학교 만들기(학교폭력 근절) 원스톱지원센터 : 지역 Wee 센터 연계
 - 성폭력 : 대구원스톱지원센터(556-8117),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421-1375)
 - 학교폭력 SOS 지원단(1588-9128), 생명존중(1577-0119), 생명의 전화(1588-9191)
- 바. 2013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 기간 : 2013. 3. 25.(월) ~ 4. 30.(화)
 - 대상 : 전국 초중고 4~6학년 및 중·고생
 - 방법 : 온라인 조사(나이스 학생서비스, <http://hes.dge.go.kr>)
 -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 설명회 : 전학교 교감(2013. 3. 25.)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철저

가. 학교폭력 사안대응 매뉴얼 숙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활용

나. 일반 사항

-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처리
- 학교폭력 피해학생 우선보호 : 출석인정 결석, 탄력적 전학·학급교체 등
- 집단 괴롭힘 사안은 밀착 조사 처리

4. 학생안전 보호 대책 추진

가. 배움터 지킴이 봉사단 확대 배치

- 2012년 672명에서 2013년 704명(초 393, 중 211, 고 92, 특수 8) 확대 배치
- 안전강화학교, 초 학생수 400명이상, 중 학생수 600명이상 학교 2명 배치
-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위촉 시 범죄경력조회(성범죄 경력조회 포함) 확인

나. 외부인으로부터 학생 안전보호

- 모든 초, 중학교에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 배움터지킴이 상주(후반기 고등학교 설치)
- 보호실 내 CCTV모니터링 기능 : 실시간 모니터링
- 교내 출입 차량 통제 및 외부인 단속(출입증 패용) 철저 이행
- 단체나 집단으로 방문 시 사전 허가 후 방문
- 담장 없는 학교의 투시형 담장 설치

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 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

5. 학생 상담활동 활성화를 통한 위기학생 지원 및 학생 안전 사전 예방

가. 학기 초 집중 상담 실시(3월, 9월) : 상담 및 관찰 결과 기록 유지

나. SNS,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활성화

다. 주 1회(1시간) 사제동행 행복시간 확보 및 활용

- 사제동행 행복시간 운영 자료집 활용(학급별 1부씩 배부)
 - 학교가 좋다 친구가 참 좋다(초), 우리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중·고생)
- 학급활동비 확대(1인 초등생 6,000원, 중·고생 9,000원씩 지원, 150% 증가)
 - 학생과 상담 등 소통 비용으로 활용(연 2,645,259천원)
- 라. 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비 편성 및 활성화 협조
 - 운영비 : 학교기본경비 지원(교별 200만원, 소규모 100만원)
- 마. 전학교 1교 1친한친우교실(단위학교별 대안교실) 운영 협조
 - 학교별 친한친우교실 운영 계획 수립으로 부적응학생 지도 철저
 - 중학교 학생부장 수업감축을 통한 단위학교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지원
- 바. 단위학교 상담전문인력 활용 철저
 - 전문상담교사 배치 : 85명(Wee 센터 8명,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6교)
 - 상담사 및 상담복지사 배치 : 206명(초 107명, 중42, 고55)
 - 상담봉사자 : 180명(초160, 중1, 고11)

6.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로 학생 인권 존중 및 규칙 준수 의식 함양

- 가. 학생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 1) 학생·학부모·교사 상호간 인권존중 학교문화 만들기
 - 2) 학생 지도 시 및 학생 간 언어순화 교육 강화
- 나. 학교규칙 준수 문화 조성
 - 1)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생활규칙 개정
 - 2) 법준수 문화 : 개정된 학칙 준수 및 준수 문화(매니페스트) 조성

7. 생명존중 의식 함양으로 학생 건강 보호

- 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후 관심군 등 위기학생 조기개입
 - 1) 대상 : 2013년 초1, 4학년, 중1, 고1학년 대상(약 10만 여명)
 - 2) 관리
 - 재학생 : 2012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시 관심군 학생은 담임중심 상담활동

- 신입생(초1, 4, 중1, 고1) : 2013년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관심군 이상 관리
 - 고위험군 학생 병원연계 진료 및 상담비 지원(1인 600천원, 저소득층 무상)
 - 총 사업비 : 2,927,018천원

나. 교사역량강화

-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담당교사 직무연수 : 교당 1명(431명), 50,000천원
- 2) 유관기관 연계한 위기학생 사례관리 연수 :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등 매월 1회
 - 자살예방 위기개입 직무연수 : 전국단위, 교육지원청당 1명씩, 지도교사 양성
- 3) 자살예방 위기관리 프로토콜 배부 : 파일, 시교육청 홈페이지
- 4) 학생자살예방 교수학습 자료제작 및 배부 : 15차시, 초, 중, 등용

다. 위기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 : 연2회, 필요시 상시

라. 학교 지원 인프라 구축 운영

- 1)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건강사 배치(56교)
- 2) 전 중, 고에 상담인력 배치 : 전문상담교사 77명, 상담사 97명, 상담부장
- 3) 전 중학교내 Wee 클래스 설치 운영(123교, 1차 상담)
- 4) 기 설치된 Wee센터(교육지원청)에 위기학생 상담 의뢰(2차 상담)
- 5) 친한 친구교실 운영(431교)을 통한 또래상담 활성화

마. 범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 1) 의학계, 청소년 지원단체, 종교계 등
 - 병원Wee센터 설립 추진 : 관내 종합병원 4곳 설치 예정
 - 관내 31곳의 신경정신과의원과 협력하여 병원 방문 학생 지원
 - 신경정신의학회 연계 학교 방문 특강 : 2013년 실시 예정
- 2)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상황 파악 및 지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상자 조사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상자 지원(상담)
 - 베르테르효과 예방
- 3) 상황에 따른 Wee 센터,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연계 상담활동 강화
 - 매일 10분 이상 조·종례 운영 : 상황에 맞는 생명존중 예방교육 실시

- 주1회 담임시간 활용 상담활동 강화 및 누가기록
- 교우관계 파악(수시)
 - 또래 상담활동 적극 활용(학급당 3명, 봉사점수 인정)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주의군, 고위험군 지속 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의 현황 및 추진 경과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경상북도 교육청)

현실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된 최 군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자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반성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우 관계 문제, 고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환경 변화, 통학 거리 등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전에 학생이 투신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긴급 대책반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Wee 센터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는 등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못지 않게 가해학생들도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과 상담사가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입건 상태입니다.

지난 2년 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19명이며, 그 중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이번까지 2명입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 및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장난과 폭력 간 분별 부족, 보복을 두려워 한 피해 학생의 신고 기피, 가볍고 지속적인 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주저, 성적 제일주의, 소통의 부재, 교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상담 시간 절대 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 사건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학기 초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6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큰 과제 아래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및 학생 생활지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였습니다. 3월 8일에는 유·초·

중·고등학교 원감과 교감 연수회 시 토크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의 연간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학교에서 2013학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기도 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에 대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해 3월 12일 긴급 대책 회의, 3월 15일 23개 시군 교육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토론회, 3월 18일 학교폭력 대책팀의 실천 방안 발표, 3월 2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경산-청도지역의 기관장 회의 개최, 4월 1일 ~ 5일 24개 위기 학교 현장 컨설팅,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토크 학교장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제시한 7대 기본 대책과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세부 추진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세부 실천 방안 수립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가 제시한 7대 기본 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3. 또래 활동 등 예방 교육 확대
4.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세부 추진 과제(별첨)

1. 존경과 배려의 인성 교육 강화

- 가. 바른 사람 키우는 조기 인성 교육
- 나. 규칙과 질서 존중 생활 속 인성 교육
- 다. 통합 교육과정 속에서의 인성 교육
- 라. 언어 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 문화
- 마. 건전한 학교 문화를 통한 인성 교육

- 바. 감성을 키우는 문화 예술 교육
- 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활동 강화

2. 학교폭력 선제 대처 능력 및 책무성 제고

- 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전 교원 기본 상담 기법 연수
- 나.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 다. 담임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마. 학교 상담망 확충

3. 사제·또래 간 공감을 통한 폭력 예방

- 가. 굿바이! 학교폭력, 학생 속으로 스며드는 생활지도
- 나. 격려와 칭찬으로 공감 형성
- 다. 학생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

4. 조기 발견과 신고로 가·피해 학생의 즉각적 조치

- 가. 학교폭력 발견 즉시 신고
- 나. 학교폭력 예방 길라잡이 개발·보급
- 다. 위기 학생 예방을 위한 New-Start 프로그램 운영
- 라. 위기 학생 및 가해 학생 특별 관리
- 마. 피해 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 바. 학생 자살 위기 관리

5.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 가.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 나. 학부모의 핵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 학부모의 자녀 이해 및 책무성

- 라. 교육 기부형 학부모 자원 봉사 활성화
- 마.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 바. 지역 단위 대응 역량 강화

6. 학교폭력 유해 요인 차단과 안전 인프라 확충

- 가. On·Off-라인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 나. 학교폭력 징후 사전 조기 포착 및 특별 관리
- 다.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러한 국가 대책과 경상북도 학교폭력 예방 근절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2013 학교폭력 예방·근절 특별 대책인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위험도 감지 시스템 구축

■ 마음을 나누는 상담 활동

- 학기 초 전학생 1:1 담임 면담 실시 후 문제가 발견된 학생을 상대로 책임교사, 교감, 교장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발생 잠재성이 높은 학급에는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내에 있는 1,900여명의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 명단 제공
- 매월 1회 학교 여건에 맞는 상담의 날 운영과 다양한 상담 활동 권장을 위한 학교 밖 체험 활동을 동반한 상담의 날 운영 권장

■ 학교폭력 신호 체계 구축하여 문제 학교 특별 관리 실시

- 생활지도 특별 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통계 자료, 현장 조사를 통해 전체 학교를 적·황·청·녹색으로 구분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2. 학교폭력 사각지대 제거

■ 학교폭력 신고 강화

- 117 홍보 문구 부착 의무화
-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 SOS 국민 안심 서비스 가입 권장

■ 폭력 사안 처리 공백 최소화

- 학교 급이 섞인 사안에 대한 폭력 처리 방안 마련
- 여러 학교가 섞인 상태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안 마련
- 학교 간 공동 대처 능력 강화(지구학생생활지도위원회)

■ 학교 단위 지원 강화

- 1+5교 담당제 운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 해당 장학사 학교 점검 및 지도
- 전문가 상시 컨설팅(현장 컨설팅 및 학생 및 교사 폭력예방 교육 동시에 실시)

■ CCTV 사각지대 제거

- 순찰 강화
- 경고 문구 부착
-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 CCTV 성능 개선

3. 현장 지원 체제 강화

■ 학교 컨설팅 효과 극대화

- 4월 중 1차 상시 컨설팅 실시
- 5월부터 1+5 생활지도 장학 체제 구축

■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외 업무 제한
- Wee 클래스가 Wee 센터를 지원하는 선(善)순환 구조 확립
- 전문 상담 인력의 연수 강화로 Wee 클래스 기능 강화

■ 피해 학생 특별 조치 프로그램 운영

- 피해 학생 심리 치료 및 보호
-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 실시

- 가해 학생 교육 철저(교육 기관(65), 치료 기관(56) 안내)
- 결손 가정의 가해 학생 24시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어, 도덕, 사회 등 교과수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교과별 1~3차시 수준으로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체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도 연계하여 교과 간 연계, 융합을 통해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강화차원에서는 학급관찰일지쓰기,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선풀 달기 운동 등을 통한 언어 순화 운동, 1인 1악기 연주, 학생오케스트라운영(30개), 학생뮤지컬운영(10개학교), 1인 1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취미활동 활성화를 통해 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십대 사망 원인 중 청소년 자살이 1위(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1년 통계청) 여성 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살 이유 중 1위가 성적. 진학문제(37.8%), 2위가 가정 불화 및 경제(17.0%)문제, 3위가 외로움과 고독(7.0%)문제 입니다.

이는 급격한 경기 변동, 핵가족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로 상대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와 더불어 입시로 인한 경쟁 심화, 물질주의 팽배,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생명 경시 풍조가 심화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12월 국가 자살 예방 5개년 기본 계획에 이어 “비전 2013”,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제2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2009-2013)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실시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 지원을 위한 Wee 클래스를 296개교에, Wee 센터를 13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담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296명, 정신 건강 진단 인력 36명, 학생상담자 원봉사자 1,954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32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 응하였으며 이 중 1만 5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보건 센터 또는 Wee 센터 등에서 심층 사정 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살 고위험 학생을 발견하여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병의원의 전문 진료를 받게 하고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협력 속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살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학교 내 관리 시스템인 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매 학기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학교 생명 존중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살 위기 응급 처치 및 자살 개입 기술 훈련을, 대구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학생 생명 존중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6명의 학생에게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을 하였고 올 해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 의학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치료 거부 문제가 발생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편견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학생들의 심성 순화 교육을 통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자살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학생이 선호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1인 1악기 교육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을 통하여 밝고 아름다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1인 1건강 운동입니다. 방과 후 시간이나 토요일 등을 활용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서 캠프, 책사랑 축제, 사제동행, 행복 가족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심성을 바르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와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자녀의 위기 상황 대응 및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친밀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상담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 매체의 자극적인 보도가 청소년의 모방 자살 유발,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청소년들의 자살 경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자살 보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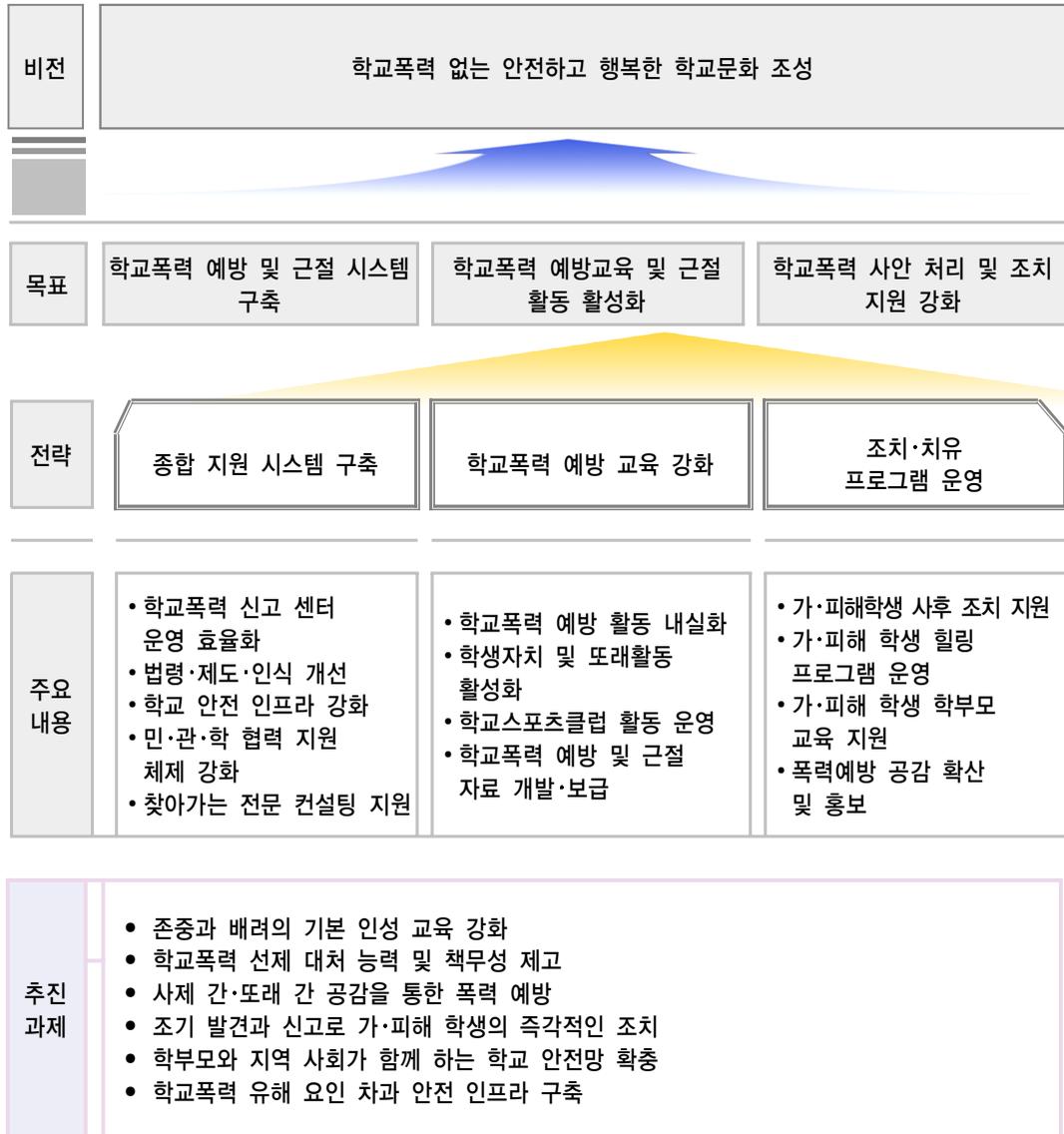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자살 예방 대책을 충실하게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등 담임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공동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 사회가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의와 인성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별첨>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I. 학교폭력 근절 추진 목표 및 방침



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세부 추진 과제

1. 존중과 배려의 인성 교육 강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에 실친 중심 인성 교육 명시
-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교사와 학생 참여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 바른 사람을 키우는 조기 인성 교육

- **【기본적 인성 교육의 내실화】** 교육과정에 기초한 바른 인성 교육
 -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덕목 교육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강화】**
 - 인성 세부 요소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1교 1나눔 운동 전개: 학교별 1개 나눔 주제 선정 실천

□ 규칙과 질서 존중 생활 속 인성 교육 실시

- **【그린마일리지(생활 평점제) 확대 운영】**
 - 칭찬 점수와 벌점 점수가 함께 운영되는 그린마일리지(생활 평점제) 운영 확대
-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 개정 추진 시 학교 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 수렴과 실천·준수 운동
 -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약을 통해 학교생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생활 속 인성 교육 실천
- **【학생 자치 법정 운영】**
 - 학교규칙 및 그린마일리지(생활 평점제)와 연계하여 규칙의 중요성과 필요성, 책임감과 준법성 강조

□ 통합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교육

○ **【교육과정 재구조화】**

- 통합형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와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
- 또래 문화 형성기인 중학교 교육 목표로 자아 정체성 함양, 인간 존중, 관용과 배려에 기초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강조

○ **【독서·토론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 독서 활동을 통한 감정 조절 심성 교육
- 3담(입담, 재담, 정담)의 자기 표현력 신장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 **【인성 핵심 역량을 실천으로 체득하는 도덕·사회 교육】**

- 따돌림 문제, 친구 간의 갈등, 학교폭력,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은 사례 실천 중심으로 수업 실시
-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대안을 찾아 학교 생활에 적용

□ 언어 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 문화

○ **【언어 순화 운동 전개】**

- 학생 스스로 욕설, 비어, 은어 사용에 대한 자치 활동을 통한 언어 순화
- 초등학교 단계부터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조기 지도
- **선플 운동 전개:** 인터넷 선플의 날, 선플 달기 운동
· 부모님, 선생님, 친구, 불우 이웃에게 감사, 격려 및 위로의 선플 달아주기
- 교과 수업과 연계한 언어폭력 없애기(언어문화 개선 실천 운동)

□ 건전한 학교 문화를 통한 인성 교육

○ **【아름다운 마무리 졸업식, 새로운 출발 입학식 문화】**

-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벗어나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졸업식 운영**
- **졸업식 뒷풀이 명목으로 폭력, 금품 갈취 등 일탈 행위 근절**
- 지역 경찰과 연계한 학교 주변 및 취약 지역 순찰 강화

□ 감성을 키우는 문화 예술 교육

○ **【다양한 취미 활동 활성화로 인성 함양】**

-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아름다운 마음 가꾸기
- 학생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으로 학생 발표회 활성화
- 음악, 미술, 공연, 영상 등 발표회 및 전시회 연중 실시

□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활동 강화**

- **【교내 스포츠 활동 확대와 토요 스포츠 강사 배치】**
 - 방과 후 시간, 점심 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한 **학급/학교 스포츠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 전개
 - **토요 스포츠 강사**를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토요 스포츠 리그 외 주중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 추진
 - 학교별 **1인 1건강 운동** 활성화
-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 신체 활동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1인 1운동 및 스포츠클럽 활동

2. 학교폭력 선제 대처 능력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 교사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
- 교사와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상담 기법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 능력 함양을 통한 사전 예방과 대처 능력 강화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전 교원 기본 상담 기법 연수**

- **【상담 기법 기본 연수】** 체계적 전 교원 연수 추진
 - 학교폭력의 이해 및 상담 개입과 대처 방안
 - 또래 관계 위기 개입 (따돌림, 대인 관계 등)
- **【상담 기법 심화 연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수 강화
 - 자격 연수, 임용 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육청 주관 각종 연수 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교직원 연수: 자체 연수(학기별 1회), 요청 연수(1회)
- 학생 교육: 정규 교과 시간 및 교과 외 시간, 조·종례 시간 이용
- 관리자 연수(학교장, 교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실시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 전 자치위원 대상 1회 이상 실시
- 교원 성 폭력 예방 교육 연수 1회 이상 실시

□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 **【가해 학생 즉시 조치】**

-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 정지 조치**

○ **【보복 폭행에 대한 가중 조치】**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가중된 징계 조치 시행**

○ **【학교폭력 은폐 시 엄중 조치】**

-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문책**

□ **담임의 역할 강화 및 생활 지도 여건 조성**

○ **【담임의 역할 강화】**

- 폭력 발생 잠재성이 높은 학급에는 복수 담임제 도입
- 매학기 1회 이상 1:1 면담 실시

○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란에 기재
- 기재된 내용은 **학생 이해와 지도 및 상급 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

○ **【교내 선도 곤란 학생별도 교육】**

- **고위험 가해 학생**은 Wee 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위탁 교육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심의·조치 사항】

-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사안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 가·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절차, 진행 과정, 결과 등 안내 철저

□ 학교 상담망 확충

○ 【단위 학교 전문 상담 인력 확대 배치】

- 전문 상담 순회 교사, 전문 상담 인력 확대, 학교 상담실 설치
- 지역 교육 상담 센터 운영(23개 전 지역교육청에 전임 상담원 배치)

○ 【Wee project 내실화】

- 단위 학교 Wee 클래스(학생 공감 상담실) 확대 설치
- Wee 센터 12개, Wee 버스 1대 운영

3. 사제·또래 간 공감을 통한 폭력 예방

- 사제 간·또래 간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 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 문화(Peer Culture) 조성

□ 굿바이! 학교폭력, 학생 속으로 스며드는 생활 지도

○ 【학급 관찰 일지 쓰기】

- 주 1회 이상 학생과 대화의 시간 갖기
- 믿음과 소통의 시간 갖기: 학생과 주 1회 소통과 믿음의 시간

○ 【사이버 상담 지원】

-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맞춤 상담 기능 제공 등

○ 【사제 동행 및 학부모와 캠프】

- 사제동행 야영 수련 및 부모·자녀 캠프와 봉사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함양

□ **격려와 칭찬으로 공감 형성**

- **【공감하며 격려하기】**
 - 부적응 학생의 못하는 행동만을 지적하지 않고 잘하는 행동을 찾아서 상점 주기, 장학금 수여, 간부 임명 등을 통한 공감 형성
 - 부적응 학생의 잘하는 행동 찾아 칭찬하기
- **【고래 반응 칭찬하기】**
 - 섬김과 배려의 「칭찬 릴레이」 전개
 - 학교홈페이지 「칭찬 합시다」 운영 및 학급 내 「칭찬 게시판」 설치·운영

□ **학생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

- **【또래 갈등 해결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 운영
- **【솔리언 또래 상담자를 선발·양성하고 관리하는 지도자 교육】**
 - 학교별로 또래 상담자 선발 → 지도교사가 또래 상담자에게 기본 교육 → 이수자에 한하여 또래 상담자 임명 및 상담 활동 개시
-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민주적 학생회 운영을 통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회 개최

4. 조기 발견과 신고로 가·피해 학생의 즉각적 조치

- '학교폭력은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인식 확산
- 학생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치유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폭력 발견 즉시 신고
 - **【학교폭력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 교육】**
 - 학교폭력 예방·대처 가정용 매뉴얼 보급
 - 학교폭력 위기 진단 체크리스트(반항성 검사, 따돌림 검사 등) 설문
 - 설문 조사, 신고함,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신고 경로 마련
 - **【학교폭력 발생 목격시 즉시 신고 의무화】**
 - 관련자 및 목격자가 방관하거나 신고 불이행할 시 불이익 조치

- 학교폭력 예방 길라잡이 개발·보급
 - **【폭력 사안 가이드북 개발·활용】**
 - 수업 지도 및 교사 연수 자료로 활용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교직원 교육 자료 활용
 - **【학교폭력 신고 기간 운영】**
 -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협조
 - 필요 시 전문 상담 기관(학교폭력 SOS 지원단) 등 도움 요청
 - **【117 신고 센터 운영】**
 - 학생 고충 상담(1588-7179), 피해 학생 상담(1588-9128)
청소년 전화(1388)
 - **【계도 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 전문가 초청 강연회, 학생 토론회, 캠페인 실시
 - 학생 학예 행사(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등) 운영
 - 학교별 홍보물 게시(플래카드, 인터넷 팝업 창, 가정 통신문 등)
 -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위기 학생 예방을 위한 New-Start 프로그램 운영
 - **【New-Start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교육 상담 센터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New-Start팀

(상담 교사, 자원 봉사자, 커리어 코치 등)이 학교 및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진행

- 프로그램 수료 시 복귀, 전학, 위탁 기관 안내에 대한 기회 제공

□ 위기 학생 및 가해 학생 특별 관리

○ 【실태 조사】

- 연 2회 정기적인 학교폭력 피해 조사 실시
- e-mail, 학교 홈페이지, 수시 쪽지 설문, 면담 등 설문 조사
-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는 전문가 집단 심층 조사 지원

○ 【위기 학생 관리 대책】

- 고위험 가해 학생 전문 진단·상담 의무화: Wee 센터 전문 진단 및 상담
- 고위험군 학생 관리 체제 강화
- 고위험 학생과 존경하는 교사 간 1대1 멘토링 제도 운영
- 보호 관찰 학생-교사 1대1 멘토링 제도 운영: 4월~, 7개 관찰 지소 연계

□ 피해 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 【외부 전문가로 피해자 지원팀 구성 운영】

- 지역교육청별 전문가(의사, 상담사, 보건교사, 경찰 등)로 구성 운영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1차 개입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이 의뢰를 받아 사안 종결 시까지 피해자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치료비 우선 지원】

- 기초 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 학생 등

□ 학생 자살 위기 관리: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1차 검사 → (2차검사) 관심군 → 심층 관리 지도
- 전문가 그룹(정신과 의사, 전문 상담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 예방 순회 교육

5.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 학교폭력 예방,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 내용, 추진 방식 혁신
- 교사-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

- 담임이 학생 장단점을 관찰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한통하기
- 학교 교육 계획 소개, 담임 학급 경영 방침 소개 등 편지 보내기
- 졸업식, 입학식, 연구 학교 공개 보고회, 축제 등에 학부모 적극 참여
- 교육 실적 보고회 및 기타 행사 개최 시 학부모 적극 참여 유도
- 학부모 재능 기부 권장

○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 자녀에 대한 관심과 관찰: 「내 자녀 바로 알기」 교육
-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 다짐 대회: 23청 연 2회
-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기본 심성 기르기

□ 학부모의 핵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학부모 핵심 역량 교육 내용】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자녀의 신체 건강 관리, 성 교육, 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
- 진로 및 학업 지도: 진로 탐색,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 【연수 방법 다변화】

- 학부모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연수 방법 다양화
-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및 직장인 대상 야간·주말 연수 확대
- 학부모 지원 센터에 온라인 학부모 연수 시스템 구축

□ 학부모의 자녀 이해 및 책무성

○ **【학교 설명회 개최 의무화】**

-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정 등 교육 계획 설명회 개최
- 일과중, 일과후 및 휴일 개최

○ **【학부모 상담 기회 확대】**

-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 제공
- 학기 초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계획을 사전 공지

○ **【학부모 소환 및 특별 교육 이수】**

- 가해 학생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특별 교육 이수

□ 교육 기부형 학부모 자원 봉사 활성화

○ **【교육 기부 활성화】**

- 교내외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인근 학교 학교폭력 상담 요원으로도 참여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 강화
- 부적응 학생을 1:1 결연하여 상담 자원 봉사 실시
- 자율 방범대, 녹색 어머니회 등과 연계 순찰 및 학생 계도 활동 실시

○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활용】**

- 찾아가는 학생 고민 해결사 역할
-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과 자원 봉사자 간 1:1 멘토링제 운영

○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

-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 등을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 단원으로 위촉하고 학부모 교육, 컨설팅, 상담 활동 등에 참여
-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 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 **【가족 간 소통·유대 강화 등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수요일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캠프’, ‘가족 봉사’ 프로그램 등 확대

□ 지역 단위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활성화】

- 관련 기관 위원 위촉 및 협의회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 학교폭력 예방,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 협력망 구축
- 공공 기관, 청소년 기관, 보호 기관, 보건 의료 기관, 법률 자문 기관 등
- 청소년 지원 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찰, 군부대, 지자체

6. 학교폭력 유해 요인 차단과 안전 인프라 확충

- 게임·인터넷 중독, 음주·흡연, 일진(학교 폭력 서클) 등 학교폭력과 관련이 높은 유해 요인으로부터 학생 보호

□ On·Off-라인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

- 유해 약물, 유해 행위, 유해 매체물 집중 단속, 게임 과몰입 예방

□ 학교 폭력 징후 사전 조기 포착 및 특별 관리

○ 【경찰과 정보 공유 체계 유지】

- 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 파악
- 지방경찰청, 교육청, 학교 간의 상시 정보 공유 체계 유지

○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 학교 생활 개선 선도 학교 운영】

- 주기적인 컨설팅 및 지원

□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배움터 지킴이 전 학교 배치 운영】

- 배움터 지킴이(자율 지킴이 포함)를 전 학교 배치, 안전 강화 학교 운영
- 학생들의 동태를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통보

○ **【전 학교 CCTV 설치】**

- 초·중·고 전 학교에 100% 완료
- 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생 간 교내 폭력 관찰

○ **【안심 알리미 및 아동 보호 구역 지정】**

- 전 초등학교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아동 보호 구역 지정



학교폭력 단속 및 예방 대책

조용선 과장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 현 황

학교폭력 단속현황

〈단위: 명〉

| 구 분 | 계 | 유 형 별 | | | | | 폭력 서클 해체 | 조 치 | | | |
|-----------|--------------|---------------|-------------|---------------|----------|-------------|----------------|-----|---------------|-----------|--------------|
| | | 폭행 (상해) | 성폭력 (추행) | 공갈 (갈취) | 재물 손괴 | 기타 (모욕등) | | 구속 | 불구속 | 소년부 송치 | 즉심훈방 내사종결 |
| 2009 | 1,311 | 703 | 30 | 442 | 30 | 106 | 0 | 6 | 1,108 | 119 | 78 |
| 2010 | 1,241 | 799 | 41 | 323 | 6 | 72 | 1 (24) | 11 | 1,089 | 78 | 63 |
| 2011 | 1,067 | 738 | 52 | 220 | 23 | 34 | 0 | 9 | 905 | 64 | 89 |
| 2012 | 1,064 | 668 | 45 | 275 | 26 | 50 | 0 | 10 | 825 | 77 | 152 |
| 2012. 2 | 104 | 70 | 1 | 33 | 0 | 0 | 0 | 0 | 79 | 6 | 19 |
| 2013. 2 | 94 | 49 | 5 | 14 | 3 | 23 | 0 | 0 | 48 | 30 | 16 |
| 대비 (%) | -10 (9.6) | -21 (30.0) | 4 | -19 (57.6) | 3 | 23 | 0 | 0 | -31 (39.2) | 24 | -3 (15.8) |

- 대구지역 학교폭력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3년간 감소 추세
- 소년범 비범죄화를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 즉심·내사종결 처분 증가

대구지역 학생 자살현황

- 2010년 8명, 2011년 9명, 2012년 9명, 2013년 4명 등 최근 3년간 총 30명이 자살, 매년 8~9명이 자살

- 학력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2011년 1건, 2012년 1건 등 총 2건
- 그 외 원인으로 가정불화 8건, 우울증 7건, 경제적 궁핍 3건, 성적고민 2건, 신체결합 3건, 원인불명 등 기타 5건

II. 경찰 대책

□ 학생 눈높이에 맞는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 활성화 유도

- 대구 117 신고센터 운영('12. 6. 18) 및 홍보강화
 - “학교폭력은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감 형성에 주력
 - 학교폭력 신고 일평균 15건 접수 ※ 10명 근무(경찰3, 교육청5, 시청2)
- 전체 학생(436개교 36만여명) 및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 “카카오톡” 친구맺기,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홍보
 - 신고방법 및 처벌사례 게시하여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제고
 - 학생회 간부, 명예경찰소년단 등 친구등록
- 명함·홍보전단지·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학교폭력 실태와 시책의 적절성 여부 확인위해 수시 여론 수렴
 - 전담경찰관, 학교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500여명 대상('13. 3.20~28)

□ 불량써클 등 문제학생 위주 대응 강화

- 「일진 등 불량써클」 집중단속 추진(4. 1~7. 9, 100일간)
 - 학교 담당형사 지정, 학교전담경찰관과 유기적 협조
 - '12년 해체된 일진(54건 195명), 학교짱(110개교 117명) 등 재결성 방지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3. 11~4.19, 6주간)
 - ※ 자진신고 학생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즉심처분

□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관내 초4·중2, 심각한 학교폭력 발생, 교육 요청학교 우선교육

- ※ 초4는 만10세로 촉법소년, 중2는 만14세로 범죄소년에 각 진입하는 학년
- ※ 학교폭력 설명회 55회 개최, 학교폭력 예방교육 297회 16만명
- 유치원까지 교육 대상 확대, 학교폭력 저 연령화 현상에 선제적 대응
- 교육청와 합동, 초·중·고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 강사 발굴 및 노하우 전파
- 경찰관서 견학프로그램 참여 학생, 부모와 함께 순찰봉사 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책임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제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 27명 운용, 1인당 10개교(43명)까지 지속 확대
 - 「117센터 - 전담경찰관 - 학교」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 학교폭력 적극 대응 및 피해학생 사후 관리 강화
 -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참석 75회, 피해학생 멘토링 87회 등
- 전문화교육 우선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전담경찰관 역량강화

□ 가해학생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치료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사랑의 교실 및 경찰서 자체선도프로그램 운영(연 1,491명 참여목표)
 - 직업체험, 상담, 분노조절 교육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양준혁 야구재단, 삼성라이온즈와 청소년 야구캠프 추진
- 경미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즉심·훈방처분 활성화
 - 변호사·의사·NGO 등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 ※ '13년도 7회 개최 ⇒ 훈방 13명, 즉심 4명(선도프로그램 이수조건)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심리전문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 소지자 위주 편성
 - ※ 지도교수 7명, 범죄심리사 10명 등 총 27명
 - 전체소년범의 14%인 815명 조사 목표(現 190명 조사)



경북지역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 대책

최주원 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 학교폭력 검거현황(경북) 】

(단위: 명)

| 구분 | 계 | 유형별 | | | | | 조치 | | | |
|----------|-------|-----|-----|-----|------|-----|----|-----|-------|-----|
| | | 폭행 | 성폭력 | 공갈 | 재물손괴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소년부송치 | 불입건 |
| 13년 1~3월 | 291 | 152 | 2 | 30 | | 107 | 5 | 208 | 9 | 69 |
| 12년 1~3월 | 234 | 146 | | 61 | | 27 | 3 | 95 | 8 | 128 |
| 2012년 | 1,346 | 844 | 9 | 242 | 8 | 243 | 14 | 869 | 66 | 397 |
| 2011년 | 860 | 611 | 26 | 79 | 15 | 129 | 5 | 693 | 91 | 71 |
| 2010년 | 911 | 606 | 13 | 117 | 3 | 172 | 13 | 724 | 40 | 134 |
| 2009년 | 1,108 | 696 | 35 | 163 | 6 | 208 | 7 | 844 | 123 | 134 |

- '1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 이후 큰 증가세를 보임**

- ※ '13년 3월말 현재 작년 동기간 대비 24.4% 증가

- 유형별로는 **폭행(62.7%~7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의 미래를 감안 사안이 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도·훈방에 중점**

【 청소년(15~19세) 자살 현황 】

| 구 분 | 경 북 | | 전 국 | |
|-------|-----|--------------|-----|--------------|
| | 명 | 발생률 (10만명 당) | 명 | 발생률 (10만명 당) |
| 2011년 | 16 | 9.2 | 317 | 8.9 |
| 2010년 | 16 | 9.2 | 292 | 8.3 |
| 2009년 | 12 | 7.0 | 369 | 10.7 |
| 2008년 | 16 | 9.4 | 269 | 8.0 |

※ 「사망원인통계(2011)」 통계청

- 지난 4년간 통계상 별다른 변동 추이는 없으며 '11년을 제외하고 **경북지역의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

□ '12년 추진 성과

-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 학교·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교내 게시판 등 활용, 학교전담경찰관 및 117 신고센터 집중 홍보
 - ※ 학교폭력 신고('12년) : **경북 117센터 개소후 日 평균 13.2건 접수**
 - 범죄예방교육 등 행사시 카드형 USB 등 홍보물 배포(예산 5,450만원 집행)
- 독자적인 자체 설문조사로 지역별 관리학교 선정 및 특별 관리
 - 1차 조사(2월) 결과 212개교, 2차 조사(6월) 결과 162개교 집중 관리
 - 범죄예방교육 총 2,614회 138,194명 / 캠페인 총 5,409회 86,116명 실시

〈 1·2차 자체 설문조사 개요 〉

| 구분 | 기간 | 대상 | 피해응답율 | 비고 |
|----|------------|--------------------|---------------|---------------------------------|
| 1차 | 2. 6~13 | 도내 중·고교생 122,086명 | 4.44%(5,418명) | 전수조사 |
| 2차 | 6. 18~7. 6 | 도내 초·중·고교생 72,814명 | 3.33%(2,423명) | 1급지 15개교, 2·3급지 10개교 이상 선정 후 실시 |

- 학교별 자치조에 경찰관 참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활성화
 - 도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관을 위원으로 지정
 - 도교육당국의 자체적인 학교폭력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警·學간 자치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지속**

-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 지방청 공감드림캠프(519명 대상) 및 각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420명 대상) 운영으로 **공감대 형성 및 가해학생 선도 효과 제고**

〈 '12년도 공감드림캠프 운영 경과 〉

| 구분 | 일시 | 장소 | 참석자 | | | | 비고 |
|----|-----------|---------------|-----|-----|----|----|---------------------------------------|
| | | | 계 | 학생 | 경찰 | 기타 | |
| 1회 | 4. 28~29 | 포항 청소년수련원 | 94 | 48 | 35 | 11 | 재발방지, 심리치료 중심 프로그램 (신체본뜨기, 풍선심리치료) |
| 2회 | 5. 24~25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75 | 30 | 36 | 9 | 축구선수 이천수 참석 (사인회, 미니축구, 푸드테라피) |
| 3회 | 7. 12~13 | 구미 경북환경연수원 | 115 | 40 | 46 | 29 | 경찰-산림청-환경연수원 간 MOU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
| 4회 | 8. 6~7 | 경주 대현유스호스텔 | 277 | 201 | 66 | 10 | 리더 학생들 캠프 인권위원회 참여 |
| 5회 | 12. 26~27 |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 274 | 200 | 54 | 20 | 리더 학생들 대상 경찰발전위원회 참여 |

□ '13년 중점 추진 과제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12년 44명 → '13년 55명) 운영 활성화**
 - 경찰서별 업무수요 및 인력을 고려하여 인원 배정(총 55명)

| 경찰서 | 계 | 경주 | 포북 | 포남 | 구미 | 경산 | 안동 | 김천 | 영주 | 영천 | 상주 | 문경 | 칠곡 | 의성 | 청도 | 영덕 | 울진 | 봉화 | 예천 | 성주 | 청송 | 영양 | 군위 | 고령 | 울릉 |
|-------|----|----|----|----|----|----|----|----|----|----|----|----|----|----|----|----|----|----|----|----|----|----|----|----|----|
| 전담경찰관 | 55 | 6 | 4 | 4 | 5 | 3 | 3 | 3 | 3 | 3 | 2 | 2 | 2 | 2 | 2 | 1 | 2 | 1 | 1 | 1 | 1 | 1 | 1 | 1 | 1 |

- 수시 학교방문·생활지도교사면담을 통해 일진 등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유, 범죄 예방교육 실시 등 학교폭력 업무 전담
- ※ 1개교당 학교방문 및 교사면담 월 1회, 범죄예방교육 2월 1회 이상

〈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임무〉

- 학교에 진출, 범죄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위원으로 활동
-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사후관리

■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서 간 공동모니터 실시

- 학교전담경찰관 간 범죄예방교육 등에 관한 상호모니터를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강의기법 보완
- ※ 학교전담경찰관 1인 운영 경찰서 위주로 2~3개서를 1개 권역화

○ 117센터 운영 내실화

- ‘117센터-Wee센터-청소년지원센터’ 간 업무 협조를 위한 핫라인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내실화

- (협력체계)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명단 제작, 117 센터에 제공
- (정보공유) 일진 등 폭력씨클 정보는 전담경찰관에 즉시 전파, 강력 대응
- (사후관리) 피해학생 추가피해 등 확인 위해 전담경찰관에 연계, 멘토링 등 실시

- 수시 사례회의 및 전문 교육 실시로 상담 역량 강화
- ※ 사후 콜백(Call-back) 실시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학교폭력 예방 홍보활동 내실화

- 학교와 협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적극 홍보
- 신학기 및 2학기初 학부모 대상 대대적 범죄예방설명회 개최 및 주기적으로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는 서한문·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를 통해 학생에 비해 낮은 학부모의 체감안전도·만족도 제고
 - ※ '12년 10월 학교폭력안전도 조사결과, 체감안전도(학생 84.9 / 학부모 72.6), 경찰활동만족도(학생 72.4 / 학부모 51.8)

■ 학기초 및 학기 중·후반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실시

- 학기초 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 집중 실시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 학기 중·후반 1개 학급을 대상으로 각 수업시간 종료 前 10분 정도 소요의 게릴라식 범죄예방교육 실시로 교육 효과 제고
 - ※ 소규모 단시간 교육으로 학생의 교육 집중도 제고

■ ‘경찰체험 프로그램(공감-Dream스쿨) - 토요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시간에 경찰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 강화

■ 수요자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유치원까지 예방교육 확대, 유년기 학교폭력 근절의식 조기 형성
 - ※ 교통안전교육, 사인지문등록, 경찰서 견학 기회 등 활용
- 집중교육 대상 학년(초4·중2)을 정하여 우선 교육 실시
- 대상별(유치원생·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PPT·동영상 등 교육자로 활용, 교육 효과 극대화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경찰서 초청 범죄예방교육 및 경찰체험 프로그램 실시

○ 학교폭력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교육청 및 관련 NGO 등과 협력체계 구축

- 학교 측과 협조,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공동대응
-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 개최 및 MOU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학교폭력 근절 동참 분위기 조성

■ 경찰 유관단체 대상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 경찰발전추 등 경찰 협력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시 홍보 강화
- 지역치안협의회와 학교폭력 대책 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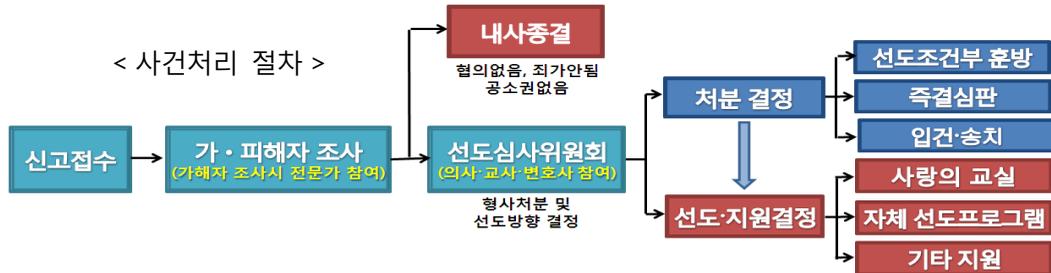
○ 사후 관리 강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자치위원회 참여 방식을 선택, 각 지역 학교폭력 실태 및 특성에 적합한 자치위원회 운영 도모
- 주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자치위원회 참여 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 확립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 소년범 대상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다이버전 확립

- 경미초범 소년범에 대하여 죄질,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도와 처벌 대상으로 구분·처리



■ 사랑의 교실 및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최종·성별·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랑의 교실 내실화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자체 선도프로그램 지속 개발·운영
- 지방청 주관 ‘공감드림캠프’ 지속 운영('13년 4회 500명 대상 운영 예정)

□ 참고자료

< 학교폭력 원인 분석 >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낮음

- ‘사소한 괴롭힘·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에도 방관하는 경향 존재
- 학교폭력에 대한 그동안의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 조치에 치우침

○ 정서적 폭력의 확산 및 지속성 확대

-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서툰’류의 강제적 심부름(금품갈취 포함),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
- 특히, 정서적 폭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휴대폰 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

○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한 학교폭력 심화

- 상급학년(선배)의 하급학년(후배)에 대한 차별 및 기함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 속에 이를 감내
- 인내가 미덕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근심과 걱정,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터놓고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여 학교폭력 문제가 음성화

○ ‘일진 등’의 학교 내 영향력 증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7.9%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이룸
- ※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예단

-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고, 학교별 일진이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 발생

< 자살 원인 분석 >

- 자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12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비추어보면 ‘성적·진학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13~19세)의 12.1%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성적·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 ‘경제적 어려움’(16.7%), ‘외로움·고독’(12.5%) , 順이었음

▶ 청소년(13~19세)의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 (2012)

(단위 : %)

| 응답률 |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 | | | | | |
|------|--------------|----------|------|---------|---------|------|
| | 소 계 | 성적, 진학문제 | 가정불화 | 경제적 어려움 | 외로움, 고독 | 기 타 |
| 12.1 | 100.0 | 39.2 | 16.9 | 16.7 | 12.5 | 14.7 |

※ 「사회조사 2012」, 통계청 / ‘기타’는 이성문제·질환(장애)·친구불화 등 포함

- 또한, 청소년 10명 中 6~7명이 학교생활 포함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에 비해 다소 감소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12)

(단위 : %)

| 구분 | 가정생활 | | 학교생활 | | 전반적인 생활 | |
|--------|------|------|------|------|---------|------|
| | 2010 | 2012 | 2010 | 2012 | 2010 | 2012 |
| 15~19세 | 45.6 | 42.1 | 64.1 | 58.3 | 70.3 | 64.5 |

※ 「사회조사 2012」, 통계청

제 2 주제



학교폭력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

문재현 소장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제 2 주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샘 프로젝트

문 재 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경찰 아저씨들 내가 이때까지 괴롭힘 받았던 얘기를 여기다 적을게요.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도 백퍼센트 못 잡아내요.
반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괴롭힘은 주로 그런데서 받죠.

- 요약 -

학교폭력은 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뺑서틀 등등.
이 중 내가 당한 것은 물리적 폭력, 조금이지만 금품갈취(특히 ○○○), 언어폭력 등등.
이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하거나 사각지대 혹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도 판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CCTV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1일 경북 경산에서 자살한 학생의 유서 가운데 일부이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CCTV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왕따 문제, 위기 청소년 문제, 학원에서의 폭력 문제, 기숙사 폭력 문제, 일진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살한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일진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기숙사에서 폭력을 당했으며,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를 당해왔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학생이 경찰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일상을 같이 해왔던 친구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친구나 선생님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자살하려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아이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또 부모님과 교사가 왕따 징후를 발견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보통 왕따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비싼 옷이나 고가의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몸에서 발견되는 경우, 용돈이 모자란다고 자주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그 징후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학교 때 며칠 간 결석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 후 기숙사에서 힘들다고 1주일 만에 나오는 등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징후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어른들이 그러한 징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비극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아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인정이나 공명 반응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아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가 있고, 즐겁게 말을 걸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불안과 우울, 강박증은 물론 자살,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은 주로 같은 반 아이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도 교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연세대 한준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 비율이 80% 정도가 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30~6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

학교폭력은 교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난다는 것도 드러났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서열의 정점에 일진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실사회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폭력이 ‘왕따’이다. 왕따는 집단이 보호해주지 않거나 사실상 처분을 맡긴 누군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을까?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다. 장애, 피부색, 부모의 지위, 옷차림, 성적 등의 차이가 괴롭힘의 원인이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기제가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것이다. 한편 요즘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한테 나대면 당해도 싸다’라는 어길 수 없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요즘 아이들이 일진아이들을 다

른 아이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사회와 교실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아이들 사이의 수직적 권력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어른들은 아이들 사이를 가르치는 분열과 모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아이,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광범위한 복지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피해자 모델 : 개인적 접근방법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잡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통찰하고 진단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정부가 가지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가해자-피해자 모델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 모델]

이 모델은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본다. 즉 가해자가 공격적인 특성이 있고 피해자는 내성적이고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개인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역시 개인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가해자에게는 격리·처벌·선도를, 피해자에게는 사회기술훈련 또는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실제상황에서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한성이는 전체 아이들 중에서 키도 제일 작아서 땅꼬마, 땅콩이라고 불린다. 아토피가 있는 한성이에게 아이들은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벌레 보듯 피한다. 한성이는 학생들 모두가 알고 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전따이다. 아무도 같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성이는 학교에 올 때나 갈 때 늘 혼자이다. 물론 점심시간에 밥도 혼자 먹는다.

오늘 아침에도 한성이는 힘없이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선다. 창가에서는 수철이와 은혁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나란히 서 있고, 기영이와 재성이가 자기 자리에 앉아 가위바위보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다. 교실 앞쪽에서 상호와 준수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현수는 자기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한성이가 들어오자 수철이가 큰소리로 말한다.

“애들아, 바이러스 온다! 바이러스.”

수철이 말에 은혁이가 벌레 보는 듯한 표정으로 거든다.

“아, 재수 없어!”

한성이가 힘없이 자기 자리로 간다. 그 모습을 보더니 기영이가 킁킁거리며 웃는다. 재성이는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고 있지만 속 으르는 ‘아, 포스 떨어. 나도 저럴 수 있었으면’하고 생각한다. 현수는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책을 읽는다. 그 때 머뭇거리던 상호가 수철이한테 다가갔다.

“너희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수철이는 상호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왜, 너도 짤따 되고 싶은가 보지?”

옆에 있던 은혁이가 말했다.

“아, 새끼야, 쳐 맞고 싶지 않으면 찌그러져 있어.”

상호는 수철이와 은혁이의 기세에 놀려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준수는 이 광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교사들은 어떻게 다룰까?

수철이와 은혁이 그리고 한성이를 불러서 면담하고 훈계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교실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 문제를 가해자, 피해자의 개인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가해자-피해자 모델의 특성이다.

가해자-피해자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관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괴롭힘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가 존재한다. 방관하던 친구들이 폭력을 제지하는 방어자로 나선다면 피해자에게는 보살핌을, 가해자에게는 자기행동을 되돌아 볼 기회를 주게 된다. 때문에 방관자의 역할이야말로 말로 왕따를 해결하는데 이론적 실천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방관자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피해자 모델은 대안적인 행동도 제시하기 어렵다. 괴롭힘 상황에서는 괴롭히는 행동과 괴롭힘을 당하는 행동, 방관하는 행동, 돕는 행동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 중에서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돕는 행동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이나 정부의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생들에게 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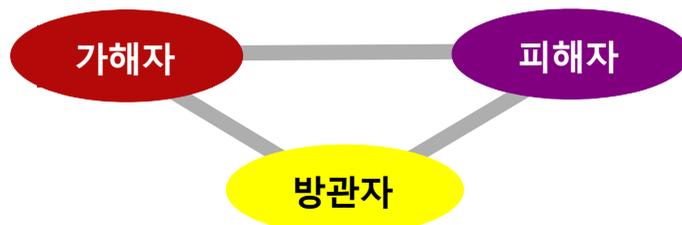
적이고 협동적인 행동을 제시해야 하는데 가해자-피해자 모델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현재 가해자-피해자 모델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주일 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도록 한 것,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배치하는 것은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근본적인 예방프로그램 없이 그 책임을 가해학생한테만 묻는다는 혐의를 피할 수가 없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델 : 생태학적 접근방법

학교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반 아이들 전체가 지켜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해자가 다른 아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교실의 위계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신체적 공격이나 놀림, 욕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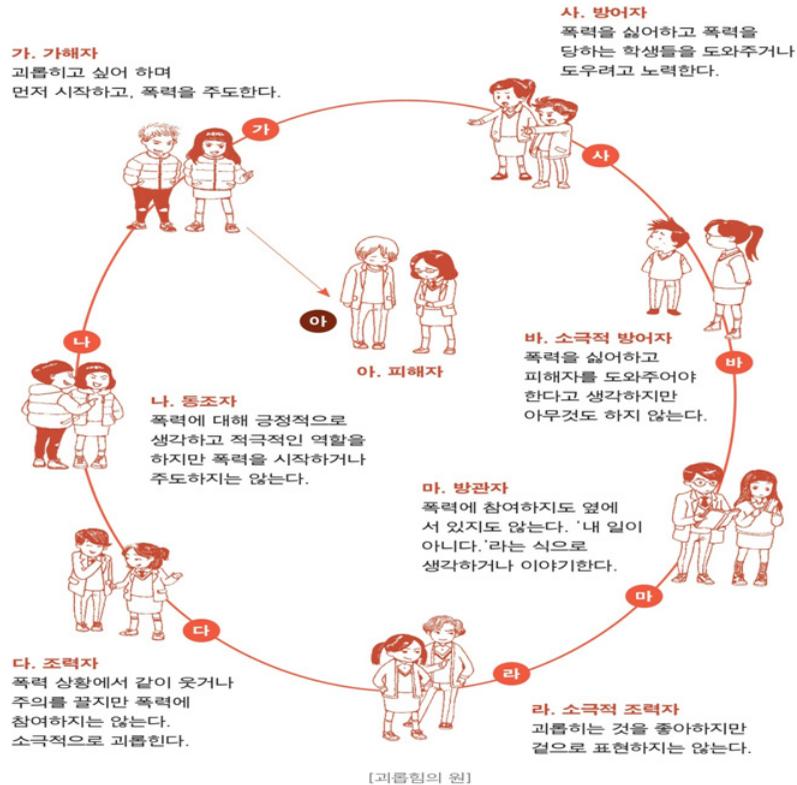
방관자는 직접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폭력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모르는 척함으로써 가해자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관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급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 대두된 접근 방법이 ‘생태학적인 방법’ 즉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델이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델]

이 모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올베우스 프로그램 중 ‘괴롭힘의 원’이라는 개념도이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에서는 괴롭힘의 원이라는 개념도를 바탕으로 괴롭힘 상황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조력자(다)에서 소극적 방어자(바)까지의 학생들을 방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방관자라는 그룹에도 다양한 태도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동조자(나), 그리고 피해자(아)의 역할은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변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교사들은 방관자들을 괴롭힘의 원에서 방어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델에 기초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노르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과 핀란드 ‘키바 코울루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평화샘 모임이 개발한 ‘평화샘 프로젝트’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4대 규칙, 멈춰와 역할극(괴롭힘의 원에 따른 예시 역할극, 왕따 역할극, 사건발생 이후의 역할극), 학급회의 등이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교사는 가해자-피해자 모델에서처럼 수철이와 은혁이, 한성이만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 괴롭힘 상황을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방관자는 가해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급 아이들 모두에게 괴롭힘 상황을 바로 알리고 역할극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만약 교사가 미리 규칙에 합의하고 예방 역할극을 진행한 상태라면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어자가 되는 행동을 연습한다.

또한 학교 전체에 아이들의 이름 등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외한 내용을 알리고 모든 학생들이 역할극과 토론을 통해 그 상황과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한다. 교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토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이다.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구되고 상세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급을 운영할 때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전망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교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은 학교와 교사들을 뒤통에서 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것일 뿐 효과적인 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평화샘 프로젝트의 구성

평화샘 프로젝트는 2009년 책임연구원인 문재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후 다양한 사례, 특히 북유럽 여러 나라의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현장 교사 10여 명과 함께 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실공동체 프로그램, 2011년에는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2년에는 마을 공동체 차원의 대응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멈춰’,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왕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아이들을 살리는 동네’ 등의 책을 평화샘 프로젝트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평화샘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것은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 이름이 ‘평화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연구자가 구성하고 제안하기는 하였지만, 기획과정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평화로운 교실을 지향하는 선생님(샘)들이 만든 프로젝트라는 뜻이다. 또

한 이 프로젝트가 샘(泉)처럼 평화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며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평화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교실 프로그램

폭력에 대처하는 학급 규칙(4대 규칙)

멈춰 제도

역할극

협동적 학습

학생들의 공동체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동아리, 자기표현,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나들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하루 열기와 달기 등)

학교 프로그램

실질적인 설문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지원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위기 상황에서의 개입 프로그램

위험지역과 시간에 대한 감독 강화

일진 문제에 대처하는 교사 워크숍 (5~10시간)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예 : 청주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수곡동 네트워크’, 서울 금천구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마을과 학교 만들기’)

지역아동을 돕기 위한 솔루션 회의 (사례 회의 및 지원 방법)

위기개입 매뉴얼

생애발달단계에 맞는 보살핌 프로그램

평화샘 프로젝트와 올베우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가?

평화샘 모임에서는 북유럽의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연구했는데, 특히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요소들, 멈춰, 역할극, 4대 규칙 등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그런데 노르웨이와 한국은 정책 환경, 교직문화,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폭력의 강도, 문화심리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한 것이 평화샘 프로젝트이다.

정책환경의 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은 국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정부에서 2~3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였고 바로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어서 전국 차원의 캠페인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학교 차원, 지역 차원, 국가 차원에서 동시에 또는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은 또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와 달리 평화샘 프로젝트는 10명의 교사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자기 교실을 바꾸기 위한 교실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 학교 차원의 지원이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절차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재의 학교 관행과 충돌하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적용하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그래서 교실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스스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우리 교사들의 자발성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다. 평화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학에는 하루 또는 1박 2일 연수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해왔다. 그리고 상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은 거의 매일 만나서 토론하고 글을 썼다. 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과정 역시 교사들의 자발성이 기반이 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평화샘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고 있

고, 프로젝트를 접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이를 토론하고 학급 또는 학교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개 이상의 학교에서 평화샘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마을과 학교 만들기’라는 이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인 소모임을 구성하거나 학년 단위로 또는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직문화의 차이

북유럽의 경우 교사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힐 가능성을 항상 주목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자신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교사인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사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폭력을 배웠는지를 확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교사가 직간접적인 처벌이나 보상을 중심으로 교실을 운영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교실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교사의 비폭력 선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부장만 관련되고 나머지 교사들이 소외되거나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학년 단위의 모임이나 전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개입할 수 있는 교사문화를 만드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평화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먼저 설명회를 하고, 교사들이 투표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하고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15~30시간의 연수와 컨설팅 시간을 가져서 교사들이 자기 학습을 넘어서 학년 단위, 전체 교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한다. 그 결과 교사들 사이에 소통과 상호작용이 증진되고 교사들의 협동적 연대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인 요인

우리 사회에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왕따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교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왕따 문화는 쉽게 발견된다. 교직사회 역시 왕따 문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왕따 현상이 발견되는 직장은 강력한 위계질서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의사소통이 수직적이고 아래에서의 변화 요구는 묵살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진솔한 관계를 위한 갈망이 좌절된다. 그리고 그 좌절의 경험은 강한 공격성으로 표출된다. 문제는 그러한 공격성이 자신이 그를 공격해도 반격을 받지 않을 만한 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남성 관리자가 있고 관계적 공격을 잘하는 여성들이 많은 학교 사회는 왕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다. 부모들 역시 자기 아이에게 힘이 약하거나 자신보다 부족한 아이와 사귀지 말라고 요구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소수자를 무시하는 언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왕따 문화를 가르친다. 어른들이 이렇게 왕따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더 쉽게 모방하고 내면화한다. 따라서 평화샘 프로젝트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이, ADHD, 자기요구를 하지 못하는 아이 등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다.

성인지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성인지적 정책이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성 간의 평등을 위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런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평화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과 본질, 대책을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최초의 성인지적 괴롭힘 방지 프로젝트일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남자 아이들에게서 드러나는 학교에 대한 부정과 공격성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래 압력의 차이

노르웨이에도 교실의 서열구조가 있었지만 그 정점에 있는 아이가 계속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기 주기와 다른 아이들의 동맹으로 인해 그 지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진 아이들로 인해 정점에 있는 아이들도 변화가 없고, 한번 왕따가 된 아이는 계속 왕따가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전학을 가도 상

급학교에 올라가도 왕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는 일진이라는 광역화되어 있는 견고한 폭력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쉽게 멈춰를 하지 못했고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로 다가왔던 요인이 바로 이러한 또래 압력의 차이였다.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 교사들은 멈춰를 잘 외치지 않는 피해자와 방관자들을 돕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 결과 올베우스 프로그램에는 없는 총회 소집 권한을 멈춰를 외친 사람에게 부여하고 총회에서 역할극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체감했을 때 비로소 멈춰를 외칠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인내, 세심한 보살핌과 함께 또래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심리적 특성의 차이

유럽인들은 어떤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꼭 애착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동의하고 함께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아무리 옳더라도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면 함께 행동에 나서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평화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담임교사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멈춰나 역할극을 상담교사나 전담교사가 진행할 경우 아이들은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으로 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담임교사에게 가지는 정도의 애착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담임교사가 휴가를 냈을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역할을 대신할 때에도 아이들은 교사에게 협조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담임교사의 원칙과 기대, 학급운영과 통합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다른 생활지도 문제와 결합되기 어려운데, 평화샘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과 대처, 아이들에 대한 치유까지 교실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일관된 원칙과 기대는 명료하고 활달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방어자

가 되는 것을 멋있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른 교실이나 학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의 신뢰와 기대가 프로젝트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제 3 주제



청소년 자살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

장문선 교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사회에서의 자살실태



2009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15413명(1일 평균 42.2명)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10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
률 제정 후 2012년부터 시행

자살의 종류: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상태의 자살



자살, 자살시도, 자살행위, 자살생각

- | **자살** : 죽으려는 목적으로 자행된 자해행동으로 기인한 죽음
- | **자살시도** : 죽으려는 목적으로 자행된 비교적 치명적이지 않은 잠재적으로 상해를 입힐 만한 행동
- | **자살행위** : 죽으려는 목적으로 자행된 잠재적으로 상해를 입힐 만한 행동. 자살행위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 **자살생각** :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고자 한다는 본인에 의해 보고된 어떤 생각이나 심상, 신념, 의견 혹은 기타 인지

자살, 자살시도의

특징

- | **자살**
우울증 환자의 60-70%, 남성, 알코올 등 약물 남용, 자살시도를 계획함, 치명도가 높은 방법의 사용, 방해 받지 않는 환경의 선택
- | **자살시도**
15% 정도의 인구에서 시행, 주로 40세 이하의 여성,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보다는 인격장애, 충동성, 치명도가 낮은 방법의 사용,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행동함



일반적 자살 위험자



- 과거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자
 - 주위에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 자신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
 -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자주 말할 때
 -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의 상실 등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 가족 중에 자살하여 죽은 사람이 있을 때
 - 죽은 가족에 대한 죄의식의 표현 증가
 - 자신의 삶의 무가치성을 강조, 의기소침해 함



일반적 자살 위험자



- 자신의 죄에 대해 벌 받기를 강력히 원할 때
 - 생물학적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 알코올 중독 상태일 때
 - 타인의 도움을 받기 거절할 때
 - 신앙에 대한 관심증가나 감소
 - 친구나 즐기던 평소 활동에 무관심해 질 때
 - 매우 우울했던 사람이 좋아 보이거나 자살에 대해 이야기 한 후 편해 보일 때
 - 미혼, 독신, 별거



청소년 심리 특성



- 주변인(marginal person) 시기
 - 생물학적 변화와 이로 인한 고뇌
 - 정체감 형성 대 혼미의 위기
 - 개인적 우화 현상
 - 가상 청중 개념
 -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
 -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병시기
 - 참조집단의 변화



청소년 자살심리

- | 충동성이나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 | 명확한 자살동기의 존재(부모와의 갈등, 심리적 거절, 외모에 대한 고민, 이성친구와 헤어짐, 성적저하, 왕따, 입시실패 등)
- | 피암시성(동반자살, 모방자살)
- | 절망감과 모욕감 등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
- |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
- |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미숙에서 일어남
- | 치사도 높은 자살수단
- | 자살이 문제해결의 방편(현실도피)



모방자살 예방을 위한 마스크의 역할 (Phillips & Cartensen, 1986)

- | 유명인의 자살기사 보도 후 20대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는 7% 이하
10대의 자살률 증가는 22%(우리나라의 경우도 35%이상 증가)
- | 자살 기사를 신문의 전면에 내보내지 않거나 뉴스방송의 머리기사로 다루지 않는다
- | 기사를 하루 이상 반복해서 내보내지 않는다
- | 유명인의 자살 또는 다른 십대들이 자기 동일시하기 쉬운 십대의 자살을 집중해서 다루지 않는다
- | 자살할 때 겪는 육체적 고통과 흉측한 모습도 같이 보도한다
- | 카운슬링, 자조단체, 긴급 직통전화에 구조요청을 하여 불행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살의 행동적 단서

이전의 자살시도
갑작스런 비인격적 행동변화, 활동수준
증가 혹은 감소
자살에 대한 이야기

물건정돈(받았던 상자이나 기념품 버리기)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
자살에 대한 기록

섭식행동의 변화
수면형태의 변화
가출

정신신체 문제의 증가
최근 부모의 심한 갈등이나 이혼
최근 친한 친구의 자살
갑작스러운 학교 성적의 저하, 잦은 결석

갑작스런 기분 변화
외모의 급격한 변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징

-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해 자주 말한다
- 수련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한다
-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노선을 선택한다
-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듯 주저앉는다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다
-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잘 때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있다
-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있다
-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잦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 노트나 가방, 책 등에 심리적 불안을 암시하는 낙서가 많이 쓰여져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하다
-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징

-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힘을 발휘하길 즐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경찰서 등에 가해자로 불러간 경험이 있다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집단에 속해 있다
- 알코올 또는 약물을 남용한다
- 방화나 동물학대처럼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한다
- 부모에게 이유없이 반항한다
-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다
-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씹씹이가 커진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공격적 행동의 심리학적 원인

- 정신분석적 이론
- 욕구좌절-공격가설
- 공격단서가설
- 학습이론
- 공격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신장애(品行장애, 지능지체 (경계선적 지능),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조증, 충동통제장애, 물질중독,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병질, 정신분열증 등)



공격적 행동의 심리학적 원인

- 주도적이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정상적이고 선량한 우리 아이가 가해자?)
- **동조**
- **복종**



1) 동조와 복종

Asch의 연구

- ✓ 왼쪽의 선분과 동일한 선분은 다음 A,B,C 중 무엇 인가요?

7명의 피험자가 순서대로 대답을 하도록 하는 실험에서 1명을 제외한 **6명의 피험자는 실험 협조자**로써 처음과 두 번째 피험자를 제외하고는 **오답을 연속적으로 대답**



그 결과 진짜 피험자의 대답은...

전체 피험자의 70%가 전체 시행 중 35%에 달하는 오답에 동조함



1) 동조와 복종

Asch의 연구의 요약

- ✓ 집단크기와 집단의 만장일치가 동조의 중요한 요인
 - 집단의 크기가 1명일 경우 동조가 거의 일어나지 않음
 - 집단의 크기가 2~4명일 경우 동조가 급격히 증가
 - 집단의 크기가 7명일 경우 가장 많은 동조가 일어남
 - 집단의 크기가 7명이상으로 늘어나도 동조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
- ✓ 집단 사람들의 문제상황과 관련된 전문성여부가 동조에 영향을 미침
- ✓ 집단 구성원들간의 응집성이 강할 수록 동조량은 증가
- ✓ 정답에 대한 개인의 확신감이 높을수록 동조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1) 동조와 복종

동조의 이유 - Asch의 연구

- ✓ 타인들의 행동이 현실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
- ✓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응종
(Compliance)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단지 사회적 압력에 부응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Asch의 연구에서 나타난 동조는 미묘한 암묵적인 압력의 결과이지만 대부분의 응종은 명시적인 규율, 요청, 명령에 따라 나타난다



2) 복종

Milgram의 연구

- ✓ 과연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피험자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전기 충격을 받지 않지만 신음, 애원 등의 호소를 하는 학생 역할자에게 얼마만큼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가를 알아보는 실험에서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약 1% 미만이 450V까지 줄 것이라 예상



하지만 40명의 피험자 중 **65%**가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주었다



2) 복종

Milgram의 연구의 시사점

✓ 권위에 대한 복종 경향성에 관한 연구

-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사회에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 제 2 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태인 학살

✓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현상은 몇 가지 조건하에서 감소할 수도 있다

- 희생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험자가 근접해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권위적 인물의 합법성이나 동기가 의문시 될 때
-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낄 때



자녀의 집단 따돌림 부모 대처방안

잘못된 부모 반응

- “그건 단지 성장 과정이다.”/“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란다”
- “왜 처음부터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렸니?”
-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니?”
- “지금 당장 학교에 전화해야 겠다”
- “네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야. 그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을 꺼야”



자녀의 집단 따돌림 부모 대처방안

바람직한 부모 반응 및 태도

-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던다”
- “그런 일이 있더니 정말 속상했겠구나. 그 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니?”
-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함께 생각해볼까?”
- “내가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니?”
- “언제 이런 일이 시작되었니? 네가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니?”
-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네 맘을 상하게 한 게 확실하니?”



자녀의 집단 따돌림 부모 대처방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전문가와 의논한다
- 부모의 소진에 대비한다
- 학교폭력관련 대응절차를 알아둔다
-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하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청 혹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즉각 수사 혹은 상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전달되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짐



학교폭력의 예방안

-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또래 활동 등 예방교육의 강화
-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실천
- 다름에 대한 교육
- 폭력이 강한 것이라는 환상을 수정



자살위기 개입의 치료목표

- | 자살사고의 위험수준을 판단 후 기관에 의뢰 후 가족에게 알릴 것을 결정
- | 자살위기를 안정시킴
- | 자살사고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킴
- |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함
- | 자살과 관련된 일련의 계약을 논의하고 이를 약속함
- | 수면과 섭식패턴을 안정시킴
- | 억압된 정서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함
- | 자살과 관련된 생각, 감정, 계획을 말할 수 있게 함

치료목표

- | 자살사고와 관련된 개인적 역사 및 사건을 확인
- | 자살사고가 없거나 미약하였던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
- |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모색
- | 자살을 고려하게 한 자신의 내면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움
- | 술이나 약물의 의존여부를 확인하여 별도의 치료계획을 세움

청소년 자살예방 방법

1. 위험요인 제거 ; 정신과적 문제

- | 정신과적 장애
 - | 우울증
 - | 불안장애
- | 알코올과 약물남용
- | 섭식장애
- | 정신장애
- | 자살기도 병력



청소년 자살예방 방법

1. 위험요인 제거 ;



- | 부정적 생활 사건
- | 상처로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
- | 가족 내 갈등과 혼란
- | 친구, 이성친구, 동료와의 이별
- |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의 죽음 또는 관계 종결
- | 대인간의 갈등이나 상실

청소년 자살예방 방법

1. 위험요인 제거 ;



- | 법적문제
- |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 또는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또래로부터의 인정
- |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고통주기
- | 학업성적으로 인한 좌절과 학업실패
- | 시험기간 동안 학업에 대한 심한 압력



자살위험 학생 인식

; 자살 위험성 평가

- | 이전의 자살시도
- | 자살계획
- | 우울증
- | 대처기제
- | 위험한 상황들



자살위험 학생 인식

; 자살 위험성 평가

- | 자살가능성 평가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한다
- | 많은 수의 자살은 예측과 예방이 가능
- | 적극적으로 자살 가능성에 대해 평가
- | 솔직하고 직접적인 질문이 필요
- “우울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 “자살계획이 있거나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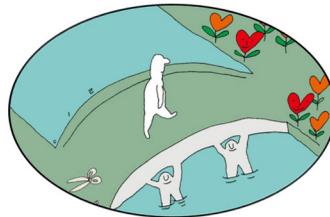
교사의 학생자살을 막기 위한 Tip

- | 성격상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심리적 지지 제공
- | 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눔으로써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줌
- |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줌
- | 자살가능성을 시사하는 언어적 또는 행동적 변화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
- |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도움
- | 무단 결석하는 학생을 주의 깊게 관찰
-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알코올과 불법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움



교사의 학생자살을 막기 위한 Tip

- | 필요할 경우 정신과적 장애와 알코올 및 약물남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의뢰
- | 자살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예컨대 독성강한 물질과 치명적인 약물, 농약, 화기, 다른 위험한 물건에의 접근 차단
- | 교직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





임상가의 치료적 개입;

자살사고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

- | 자살 주제를 내담자의 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안정되고 비판단적인 자세를 가짐
-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함
- | 내담자의 죽음의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임
- | 가볍게 처리된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느낌
→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내려 하지 않음



임상가의 치료적 개입;

자살사고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

자살사고 탐색 시 주의할 점

- | 자살이 옳은지, 나쁜지 또는 심리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하지 않기
- | 인생의 가치 또는 도덕관으로 설득하지 말기
- |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다그치지 않기
- | 결정적인 묘수를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기
- | 이들의 감정을 동정하지 않고 공감하기
- | 보편화, 회화화, 욕박지르기는 금물



치료적 개입;

자살사고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그 위험성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질문

- | 현재 자살의 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가?
- | 과거에 자살관련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 |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자살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 | 가정적, 사회적으로 지지해 줄 만한 자원이 있는가?
→ 여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지지 등이 포함
- | 현재 대처역량을 넘어선 환경적 압력, 스트레스 존재여부?
- | 현재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가?



치료적 개입;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 수준의 합의 및 이행 유도

- | 자살사고의 강도를 평가하여 타 기관 입원의뢰 여부를 결정
- | 가족 및 책임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자살사고에 관한 보고여부를 결정
→ 이러한 결정은 내담자의 의사보다 치료자의 판단에 따름
- | 상담 이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하여 약속한다
- | 위험을 막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강구하여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이에 대한 약속
→ 자살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인 방법들, 신체적 운동의 강화, 사회적 활동의 증가, 감정표현의 증대, 내적 초점화의 감소를 위한 방법을 협의





치료적 개입;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 수준의 합의 및 이행 유도

- | 약속된 어느 시간까지 자살이나 자기 손상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자살방지사약서' 작성 및 낭독
- | 자살에 대하여 생각까지는 할 수는 있으나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약속을 마련한다
ex. 술과 약을 함께 사지 않는다
10시 이후에 교각에 가지 않는다 등
- | 다음 상담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말하여 내담자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한정시킴
- | 모든 일이 다 잘될 것이라는 식의 비현실적 기대를 주거나 상투적인 수준의 안심을 주지 않음



치료적 개입;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 수준의 합의 및 이행 유도

- | 술, 약물 의존에 뚜렷한 양상을 보일 경우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개입
- | 감정표현을 격려하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도움
 - | 자살사고를 대하는 치료자는 지지적이며 관용적인 태도에 더하여 확고하고 단호하며 때론 권위적인 태도가 필요
 - | 내담자의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 불편한 것인가를 이해하며 그들의 자아 존중감이 극히 미약한 수준임을 감안
 - | 오랫동안 무망감과 무력감 이외의 정서에는 둔감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감정은 없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인 격려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닿을 수 있도록 도움
 - | 정서적 고통과 무망감의 근원을 탐색하여 그 원인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치료적 개입;

자살과 관련된
자신의 사고를 탐색하도록 도움

- |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
→ 자살하려는 이유, 현재의 상황을 언어화하도록 함
- | 자살사고 이면에 무력감, 무망감을 강화시키는
자동적 사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
- | 자살사고의 시작과 관련된 유의미한 개인적 사건이나
선행사건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 자신의 살 이유와 죽을 이유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



치료적 개입;

자살의도의 유보기간 동안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탐색

- |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자원과 강점을 평가
→ 내담자의 인생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을
찾도록 도움
- | 과거에 심각하게 나빴던 시기에 대처하였던
성공적 경험을 탐색
- | 내담자가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고찰 및 대처방략을 논의
- | 강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거나 회피할 것을 결정하도록 도움
→ 일시적 도피 시 효과적인 내면의 대처능력이
작동할 가능성
- | 이용가능한 가족 및 친지의 지지세력을 탐색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참고문헌

호연심리상담센터(2002) 문제 유형별 심리치료 가이드, 서울, 학지사
 장문선 외 공저(2012) 일상생활의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김학렬 외 공역(2012) 자살환자의 인지치료, 학지사
 한국임상심리학회(2007)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임상심리학회
 권석만(2006)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한국자살예방협회(2009),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상담
 이윤주(2007), 청소년 자살상담, 학지사
 이혜선, 육성필(2006), 십대를 위한 자살예방법, 시그마프레스



참고문헌

김시업, 한중경 저(1999), 청소년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예술
 이창호, 황봉환 저(2012) 청소년들의 폭력과 자살, 우리 모두의 아픔,
 Hiram
 한국에서의 청소년 자살연구 개관과 향후 방향성,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71-195
 학교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222-251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호
 청소년 자살예방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 자살노출 및 자살보도 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 목표불안정성의 매개역할, 청소년학 연구, 18(2), 403-42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 토론자 : 신성자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김정금 정책실장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대구지부)
- 토론자 : 임전수 교사 (대구능인중학교)
- 토론자 : 황준원 교수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 박태환 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토론자 : 윤석준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 토론자 : 이발래 팀장 (국가인권위 법제개선팀)





종합토론

신성자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행정당국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장치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1997.3)을 필두로,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2004),’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마련(2005),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규정 또는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점차 저령화되고, 폭력특성도 물리적 폭력에서 언어적, 비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의 대처규정도 가시화 되고 있지만(이미영·임지영·이순득·오승은, 2009: 179-181),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신성자, 2012a:1).

2.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괄적인 대처방안이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내용의 지속적인 보완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정 연구기획단 발족되어 및 17개 시, 도교육감에 권고하였다. 학생인권 & 교권존중, 차별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예방과 적극적인 대응 등의 내용(안성모, 2013:10)을 포괄할 수 있는 5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과학부활동 현장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의 필요성 피력하다(2012.7, 안성모, 2013:5-6). 국가가 제시한 7대 기본대책(김순기 2013:2).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6개 영역에서의 세부추진과제(별첨자료, 김순기, 2013:2), 대구 교육청, 대구 및 경북경찰청 등이 제시하는 매우 방대하고 포괄적인 대처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경감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고 실천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최근 실천의 효과성 검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증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이 학교폭력 개입방안에도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입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보완되어야 한다

(예) 2013년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실천방안 내용에 폭력 잠재성이 높은 학급에서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내에 있는 1900여명의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사 명단 제공- 집단 개입을 위한 실천역량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3) 상담 & 컨설팅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수퍼비전도 필요하다.

4)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예) ‘평화샘 프로젝트’(문재현, 2013)

‘감정코칭 및 수업코칭 연수, 교사의 학생 감정 이해, 공감을 위한 지속적 연구 실시 (대구교육청 2012 학폭 근절 종합대책방향 자료, 김사철, 2013).

3.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괄적인 대처방안이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내용의 지속적인 보완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원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화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해자 뿐 만 아니라, 학원폭력을 목격하면서도 이를 방관하는 많은 수동적인 방관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폭력에 대한 인식’, ‘친사회적 행동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부록, 신성자, 2012 참조).

[참고]

- (1) 2011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결과 학교폭력 목격학생의 약 62%가 ‘모른적 하였음’. 국가가 제시한 7대 기본대책 및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6개 영역에서의 세부추진과제에서도 학교폭력 신고체계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강조하였음은(김순기, 2013:2, 4; 장문선, 2013:12). 대구교육청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방향 내용에서도 인성교육부족과 함께 방관하는 학생문화(김사철, 2013:-3)에서 보고한 바 있음.
- (2)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 방화, 동물학대 등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한다(장문선, 2013:5))
4.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개입이 철저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학원폭력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및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모두에게 적절한 사후조치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신성자, 2012a:2, 부록 연구 2 참조).
5. 학원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화(conscientization)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닌 학생의 문제와 이들에 대한 ‘의식화’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신성자, 2012a:2). 학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조차도 학원폭력문제에 대한 의식화 수준이 상당히 낮아 학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부록 연구 2 참조).
5. 피해학생에 대한 의식화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강점 관점에서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학우를 도울 수 있는 원조자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이 필요하다(부록 연구 1 참조).
6. 학원폭력 대처를 위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감’,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 ‘공정한 학교업무환경’ 등의 조성이 필요

하다. 교사의 사회적 책임성(social commitment)은 학원폭력 상황에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직접적인 효과 뿐 만 아니라, 교사의 원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해, 피해학생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칙의 공정성 등에서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함께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신성자, 2012), 교사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권향상, 교사의 사기 및 자부심 함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부록 연구 4참조).

- (1)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학원폭력 문제해결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박창득, 2003:5). 다수의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권이중, 2003:33),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응 및 개입수준은 실제로 미흡하다(권신영, 1997, 서정남, 2000; 박창득, 2003:5, 신성자, 2012:1-3 재인용)
- (2) 평화샘 프로젝트는 10명d의 교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자기교실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였고, 스스로 회비를 내면서 한 달에 한번이상, 방학에는 하루 또는 1박 2일 연수를 하면서 연구에 참여. 교사의 자발성에 기반(문재현, 2013:8)-교사들의 사회적 책임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현(2013:10)은 교사들의 인내, 세심한 보살핌과 함께, 또래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함..

7. 학교업무환경에 ‘교사와 학생간의 지지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업무환경이 ‘변화성’ 및 ‘학업성취성’을 강조하는 학교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여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이 학교폭력발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개인 및 가정환경 요인보다 학교환경 체계의 바람직한 변화가 학교폭력 발생예방에 오히려 더 효과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신성자, 2010, 부록 연구 1 참조).

8.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 1) 선행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통계분석방법, 표본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 (1) 교사의 업무부담 & 학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효능감과의 정적 관련성(신성자, 2012a)이 밝혀져, 단순히 회귀분석 등에 기초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음.

(2) 학원폭력 가해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지적-가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존심이 강하다(장문선, 2013:5). 그러나 조성호(1999)는 학폭의 동기로 다음 8가지를 지적--“짙은 분노경향 & 높은 공격성향”, “일상생활에서의 높은 욕구좌절” “낮은 자존감” “적대적인 귀인 편향” “높은 충동성” “다른 공격행도의 모방”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높은 가치부여“ 등을 피력하였다(김교현, 왕소정. 2000:92 재인용).

2)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피해응답률 전국 최저-샘플 표집방 법과 타당도 문제제기

8. 협력체계구축과 team work의 효과성 극대화와 체계간의 효과적인 효과를 위한 세부 방안 및 contents 개발

[부록] 최근 시행한 토론자의 관련 참고 연구자료(4편)

1.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과 학생의 개인특성이 신체적, 비신체적 또래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료출처, 신성자, 정숙희, 2010]

1)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유무 관련요인

‘또래관계부진’, 또래폭력 ‘발생인식’, ‘폭력인식’, ‘변화성’, ‘성취성’, ‘지지성’ 그리고 ‘교사부담’ 등 7개의 변인이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모형의 적합성과 계수의 유의도, 승산비(odds ratio) 등에 대한 정보는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유무와 관련변인

| Parameter | Estimate | Standard Error | Wald Chi-Squ | Pr>ChiSq | Standardized | |
|--------------------------|------------|----------------|---------------|----------|--------------|------------|
| | | | | | Estimate | Odds Ratio |
| Intercept | -8.5756 | 2.6968 | 10.1119 | 0.0015 | | 0.000 |
| 또래관계부진 | 0.2781 | 0.1075 | 6.6904 | 0.0097 | 0.1302 | 1.321 |
| 발생인식 | 0.2522 | 0.0916 | 7.5782 | 0.0059 | 0.1435 | 1.287 |
| 폭력인식 | -0.3955 | 0.1609 | 6.0423 | 0.0140 | -0.1278 | 0.673 |
| 변화성 | 1.6178 | 0.3862 | 17.5530 | <.0001 | 0.2626 | 5.042 |
| 성취성 | 0.7923 | 0.3497 | 5.1329 | 0.0235 | 0.1287 | 2.208 |
| 지지성 | -1.1181 | 0.3596 | 9.6660 | 0.0019 | -0.1651 | 0.327 |
| 교사부담 | 1.3735 | 0.3819 | 12.9331 | 0.0003 | 0.1935 | 3.949 |
| Hosmer & Lemeshow 적합도 검증 | | | | | | |
| χ^2 | 12.4970 | DF 8 | Pr > χ^2 | 0.1304 | | |
| R^2 | 0.0844 | Max-rescaled | R^2 | 0.1125 | | |
| 우도비 χ^2 | 48.3081 | DF 7 | Pr > χ^2 | <.0001 | | |
| -2 Log L | 절편 759.689 | 절편 & 공변량 | 711.381 | | | |
| 분류정확도 | 66.0% | Somers' D | 0.324 | | | |

‘또래관계’가 한 단위씩 나빠질수록, 또래로부터 비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1.321배 증가하였다. 학내의 폭력발생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발생인식’)가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또래로부터 비신체적 또래폭력을 경험할 가능성도 1.287배 높아지고, 폭력 전반에 대해 문제의식(‘폭력인식’)은 한 단위씩 높아질수록, 비신체적 또래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1.486배 감소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학교업무환경’에서 ‘변화성’과 ‘성취성’이 한 단위씩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비신체적 또래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각각 5.042배, 2.208 배씩 증가한다. ‘교사업무부담’도 한 단위씩 많아질수록, 비신체적 폭력발생 가능성이 3.949배 증가하지만, ‘지지성’은 한 단위씩 높아질수록 3.058배 감소하였다.

또래관계가 부진할수록 비신체적 또래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ukowski et al, 1995, Hodges, Malone & Perry, 1997, 신혜섭, 2005: 145 재인용; 이춘재·곽금주, 2000:173; 신성자, 2005:21; Yoneyamas & Rigby, 2006, Roland & Galloway, 2006, 장미향·성한기, 2007:85 재인용). 응답자가 또래폭력 발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발생인식’)할수록,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폭력인식’)이 강할수록 감소하는 현상도, 앞서 전체 또래폭력 분석(<표>)에서 밝혀진 내용과 동일하다.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유무’ 예측모형에서 선정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를 토대로 회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유무 예측모형

$$\begin{aligned} \log \{p\} &= \log \{e\} \text{ (실제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있음)/(1-실제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있음)} \\ &= -8.5757 + 0.2781(\text{또래관계부진}) + 0.2522(\text{발생인식}) - 0.3955(\text{폭력인식}) \\ &\quad + 1.6178(\text{변화성}) + 0.7923(\text{성취성}) - 1.1181(\text{지지성}) + 1.3735(\text{교사부담}) \end{aligned}$$

◆ 학생들의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유무 예측모형

$$\begin{aligned} \log \{p\} &= \log \{e\} \text{ (실제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있음)/(1-실제 비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있음)} \\ &= -8.5757 + 0.2781(\text{또래관계부진}) + 0.2522(\text{발생인식}) - 0.3955(\text{폭력인식}) \\ &\quad + 1.6178(\text{변화성}) + 0.7923(\text{성취성}) - 1.1181(\text{지지성}) + 1.3735(\text{교사부담}) \end{aligned}$$

선정된 4개의 학교업무환경변인(‘변화성’, ‘성취성’, ‘지지성’, ‘교사업무부담’)은, ‘전체 또래폭력 피해경험’ 모형에서 선정되었던 것과 동일하다. 교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학생들의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발생에 교사들의 업무환경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특성’이 학생들의 ‘또래폭력 피해발생’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설득력을 가진다.

2) 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 관련변인

신체적 또래폭력에서는, ‘성별,’ ‘발생인식,’ ‘폭력인식,’ 그리고 ‘지지성’이 유의한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인 또래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3.413배 감소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이 특히 신체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김은영, 2008:103)와 일치한다. 교내에서 또래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발생인식’)가 한 단위씩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신체적 또래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1.410배 증가하고, 폭력전반에 대한 문제의식(‘폭력인식’)은 한 단위씩 높아질수록, 2.650배씩 감소하였다. ‘지지성’이 한 단계씩 높아질수록, 또래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2.950배 감소하였다(<표> 참조). ‘신체적 또래폭력’의 경우, 학교환경변인 중에서 ‘지지성’만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또래폭력’ 모형의 회귀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유무 예측모형

$$\begin{aligned} \log \{p\} &= \log \{e\} \text{ (실제 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있음)/(1-신체적 또래폭력 경험있음)} \\ &= -4.8185 - 1.22767(\text{성별}) + 0.3438(\text{발생인식}) - 0.97225(\text{폭력인식}) - 1.0816(\text{지지성}). \end{aligned}$$

〈표〉 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유무와 관련변인

| Parameter | Estimate | Standard | Wald | Pr>ChiSq | Standardized | |
|--------------------------|------------------|--------------|---------------|-----------------|--------------|------------|
| | | Error | Chi-Square | | Estimate | Odds Ratio |
| Intercept | 4.8185 | 2.0100 | 5.7467 | 0.0165 | | 123.779 |
| 성별 | 1.2276 | 0.3033 | 16.3862 | <.0001 | -0.3387 | 0.293 |
| 발생인식 | 0.3438 | 0.1300 | 6.9977 | 0.0082 | 0.1955 | 1.410 |
| 폭력인식 | -0.9722 | 0.2245 | 18.7580 | <.0001 | -0.3145 | 0.378 |
| 지지성 | -1.0816 | 0.5300 | 4.1651 | 0.0413 | -0.1597 | 0.339 |
| Hosmer & Lemeshow 적합도 검증 | | | | | | |
| χ^2 | 6.6117 | DF 8 | Pr > χ^2 | 0.5790 | | |
| R^2 | 0.1210 | Max-rescaled | R^2 | 0.2009 | | |
| 우도비 | χ^2 70.7766 | DF 4 | Pr> | χ^2 <.0001 | | |
| -2 Log L | 절편 505.823 | 절편 & 공변량 | 435.047 | | | |
| 분류정확도 | 76.3% | Somers' D | 0.530 | | | |

응답자의 인구사회적요인 중에서는 ‘성별’이 유일하게 신체적 폭력 피해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도 대단히 컸다(승산비, 0.293; 확률 87%).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또래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분석결과는,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성별비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폭력 피해율이 높았고, 특히 ‘신체 구타형’에서 성별 간에 차이가 현격했던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발생인식,’ ‘폭력인식,’ 그리고 ‘지지성’은 ‘전체또래폭력’ 및 ‘비신체적 또래폭력’에 이어 ‘신체적 또래폭력’에서도 선정되었다. 이 세 변인은 폭력의 형태와 무관하게 또래폭력 피해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닌다. ‘신체적 또래폭력’에서는, ‘발생인식’ 및 ‘폭력인식’이 ‘전체 또래폭력’ 및 ‘비신체적 또래폭력’에서 보다, 그 효과가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폭력인식’의 경우, 응답자(학생표본)들이 ‘비신체적 유형’보다는 폭력행동이 더 구체적이고 행동특성이 심각한 형태인 ‘신체적 폭력 유형’을 더 폭력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업무환경요인으로는 ‘지지성’이 유일하였다. ‘비신체적 또래폭력’ 및 ‘전체또래폭력’ 피해경험과 정적관계를 보였던

‘교사업무부담’, ‘성취성’ 및 ‘변화성’은 폭력행동 특성이 가장 심각한 ‘신체적 또래폭력’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심리적으로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모든 형태의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감소시키는데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실증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발견점과 시사점을 논의하면서,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은 교사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범 또는 지침으로 작용되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반영된다. 교사로부터 전달되는 이러한 지침 및 규범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 또는 조형(shaping)하며, 학생들에게 내면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환경의 주요내용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내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특성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또래폭력원인에 관한 연구가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요인에서, 학교환경으로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대부분 연구의 표본은 학생에만 한정되었고,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이 학생들의 또래폭력 피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의 ‘개인요인’(인구사회학적 배경, 폭력인식관련요인)과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폭력형태별로 ‘또래폭력 피해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두 부류로 대별된다. 즉, 모든 형태의 또래폭력(‘신체적 폭력’, ‘비신체적 폭력’, ‘전체폭력’)피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편성을 지닌 변인’(‘지지성’, ‘폭력인식’, ‘발생인식’)과 특정형태의 폭력피해발생에 영향을 주는 ‘개별성’을 지닌 변인이다.

학생개인의 ‘폭력인식관련변인’(‘폭력인식’과 ‘발생인식’)은 모든 형태의 또래폭력(‘신체적 또래폭력’, ‘비신체적 또래폭력’, ‘전체또래폭력’) 피해발생에 영향을 주었지만, ‘인

구사회적 배경변인'의 경우, 폭력형태에 따라 관련변인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비신체적 또래폭력 - '또래관계'; 신체적 또래폭력 - '성별'; 전체또래폭력 - '경제형편', '성적', '부모양육')을 보였다. '학교업무환경변인'에서는 '지지성', '변화성', '성취성' 그리고 교사의 '업무부담'이 '전체또래폭력피해'와 '비신체적 또래폭력피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신체적 또래폭력'의 경우, 학교업무환경변인 중에서 '지지성'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폭력 피해대책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폭력형태 별로 어떤 개인(학생)의 특성과 학교업무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거틀 구축에 필요한 실증적 지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소외형'(35%)폭력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드러났다.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Bourne, 1978, Cloeman & Hendry, 1990, Erikson, 1967, 이은정 재인용, 2002:17).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서 소외될 때, 정체성이 훼손되며, 사회적 결속감도 약화된다. 특히 폭력 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이 부재할 경우, 피해자의 내적, 외적 통제감은 약화되어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또래폭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 희생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기제이며(Lloyd, 1995:157), 사회결속(통제)이론(Hirsch, 1969) 또는 학습무기력 이론(Seligman, 1967, 1975) 등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져 왔다.

장미향·성한기(2007:82)는 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수준이 낮다고 하였고, 이은정(2002:70)은 '관계로부터 소외'와 '언어적 물리적 폭력' 간에는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소외형' 또래폭력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그 '만연성'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또래폭력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학생이 또래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여학생 보다 3.4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들 사이에 그만큼 '신체적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래관계'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이 많았지만, 폭력행동특성이 심각한 '신체적 또래폭력'의 경우 '또래관계'가 피해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신체적 또래폭력'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성별'만 피해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비신체적 폭력에 비해 '신체적 폭력'은 전통적 의미의 '폭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폭력성'을 '남성성'의 연장선상(continuum)에서 이해하는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 또래폭력'

은 ‘남성성’이 강하게 전이(spill-over)된 폭력이다. ‘비신체적 또래폭력’은 ‘관계’에서, ‘신체적 또래폭력’은 ‘젠더’ 관점에서 문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폭력인식’)수준이 높을 때, 또래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폭력인식이 낮은 학생이 또래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또래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특징이 ‘피해자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Von Hentig 1948, 이운호, 2007:49 재인용)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행한 표적에 불과하다고 보는 ‘무관한 피해자 관점’(Shafter, 1968; 이운호, 2007:61재인용)에서 보면,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본 연구의 발견점은 그 의미가 약화될 것이다. 학생 개인특성인 ‘경제수준’, ‘성적’, ‘부모의 양육’ 등이 학생의 ‘전체또래폭력 피해발생’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개인특성으로 제시된 것도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 본 연구결과를 추론해보면,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한 학생은 폭력상황에서 단순히 피동적인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피해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또래폭력 실제 피해발생은 학생의 개인특성보다, 오히려 ‘교사가 지각한 학교업무환경’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가정에 대한 실증적 확신을 가지게 한다. ‘지지성’은 모든 형태의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보호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교사의 ‘업무부담’과 함께 ‘성취성’, ‘변화성’은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증가시키는 ‘동반위험요소’로 작용하여 대조를 보여 주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우선시하는 ‘성취성’의 강조는 종종 과잉경쟁을 초래하여 또래 간에 갈등적인 관계를 조장하기 쉽고, ‘갈등적 환경’은 학생들의 또래폭력을 촉발시킨다(이상균, 1999a:25). ‘성취성’이 강조되는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업무수행도 성과위주로 변질되기 쉽고, 성과에 대한 부담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생과의 좋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의지와 에너지가 감소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공감하지 않는 ‘변화성’ 추구도 업무(과제)부담 및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의 ‘업무부담’과 또래폭력 피해경험과의 정적관계도 같은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중한 업무는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과 양질의 보살핌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성취성’ 및 ‘변화성’ 추구와 ‘업무부담’은 결과적으로,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소’인 ‘교사와 학생간의 지지적 관계 형

성을 억제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가 계획된 변화와 그것의 실천을 선호하며, 수업의 개방과 개별화를 촉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변화성’은 발전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변화성’이 높을수록, 실제 ‘또래폭력 피해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선행연구(권이중, 1997a: 55; 이명자, 2004:22)의 논의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다. 앞서 “정책, 규정 및 지침 등이 특정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따르도록 요구받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자율성’(평균점, 2.71)이 학교업무환경요인 중에서 가장 낮았던 현상도, ‘변화성’추구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래폭력피해를 증가시킨 위험요소로 작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교사, 학생)의 ‘합의’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성’의 추구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와, ‘또래폭력’과 같은 학교체계 내 문제행동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매우 교훈적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변화성’은 학생들의 또래폭력피해발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승산비, 4.735; 확률 83%)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교업무 운용지침 결정방식에 대한 자성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논의한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또래폭력 대책은 ‘폭력형태’에 따른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정 폭력유형에 취약한 개인특성 및 학교환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획일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폭력형태와 무관하게 고려해야 할 ‘보편성’을 가진 내용(예: 학생의 폭력인식, 학교의 지지성 등)과 함께, 특정 유형의 폭력 ‘피해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의 개인특징 및 학교업무환경 특성 등이 고려된 ‘차별성’이 반영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외형’ 폭력은 가장 만연한 또래폭력유형이고 또 다른 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예방과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학생이 또래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식향상이 요구된다. 양호한 ‘또래관계’가 특히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소집단’ 단위의 개입은 학생들의 또래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경험하면서 ‘또래로 부터의 소외’가 아닌 ‘또래와 함께’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의식향상(고양)을 위한 집단(consciousness-raising group) 프로그램과 ‘자기주장’훈련을 집단사회사업을 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또래폭력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집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관련기관(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는 단순한 ‘의뢰자’가 아닌, 개별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회의 참석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단프로그램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래관계에 취약하였던 학생들이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교사의 관심과 격려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폭(amplication)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또래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교사와 학생간의 좋은 유대형성인 ‘지지성’이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 보다, ‘변화성’, ‘성취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의 학교업무환경요인이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본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성’, ‘성취성’, ‘업무부담’ 등의 ‘위험요소가, 교사와 학생이 좋은 유대감 형성(‘지지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될 수 있어, ‘위험요소’의 개선 없이 ‘지지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는 학교체계 안에서 각기 독자성을 지닌 ‘실체’(entity)가 아니고 ‘통합체’(synthesis)라는 체계이론으로부터 배운 교훈적 지혜(instructive wisdom)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변화성’ 추구는, 그것이 지닌 이상적인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여 또래폭력 피해발생을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는데, 학교의 행정지침 및 정책이 구성원(교사, 학생)의 기능수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학생지도를 포함한 교사의 업무수행에 지침이 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에 교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에 부합하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관련 정책 및 행정지침이 소수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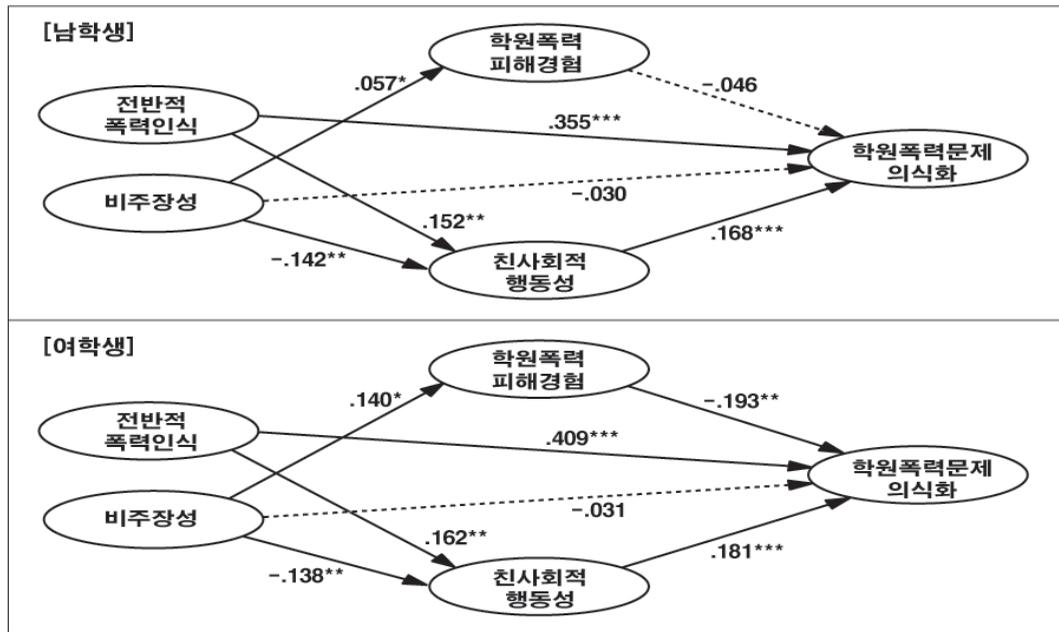
정권자에 의해 결정되고, 위계적으로 지시되어지는 행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를 위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발견점을 찾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게 된 것은 본 연구 설계와 관련된 ‘교사·학생 통합표본’의 사용과 ‘또래폭력측정도구의 구조’에서 크게 기인하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함에 있어서, 학생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요인’의 영향을 밝힐 수 있었고, 폭력형태에 따른 효과변인의 차이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2. 남, 여 중학생의 학원폭력 문제 의식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친사회적 행동성의 다중매개효과 검증을 토대로-

[자료출처, 신성자, 2011]

〈그림〉 최종 남·여 구조모형도



***p<.001, **p<.01, *p<.05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여학생 집단에서도, ‘비주장’→‘학원폭력문제 의식화’ 경로의 추정치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못했다. 나머지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여학생집단의 각각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어도,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수학적 차이에 의해 크기를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크기의 비교는 계수차이 검정을 하여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검증한 후 해석할 수 있다. <표>에서 제시한 계수차이 검정결과에 의하면, 모형에서 포함한 7개의 경로 중에서, ‘학원폭력 피해경험’→‘학원폭력문제 의식화’ 경로에서만 유일하게 두 집단 간의 경로추정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집단의 모형의 경로추정치는 <그림>과 <표>에서 제시하였다.

‘전반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남학생 경로계수=.355; 여학생 경로계수=.409). ‘친사회적 행동성’ 또한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남학생 경로계수=.181; 여학생 경로계수=.168). ‘비주장성’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직접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여 두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표〉 성별 경로추정치

| 최종모형결과 | 비표준화추정치(표준오차) | | | | 표준화추정치 | |
|---------------------|---------------|-------------|----------------|-------------|--------------|----------------|
| | 남학생 | | 여학생 | | 남학생 | 여학생 |
| 친사회행동 ← 비주장 | -.114** | .043 | -.114** | .043 | -.142** | -.138** |
| 피해경험 ← 비주장 | .026* | .013 | .026* | .013 | .057* | .140* |
| 친사회행동 ← 폭력인식 | .148** | .054 | .148** | .054 | .152** | .162** |
| 문제의식화 ← 피해경험 | -.077 | .114 | -.070** | .114 | -.046 | -.193** |
| 문제의식화 ← 친사회행동 | .165** | .051 | .165** | .051 | .168** | .181** |
| 문제의식화 ← 폭력인식 | .341*** | .057 | .341*** | .057 | .355*** | .409*** |
| 문제의식화 ← 비주장 | -.023 | .037 | -.023 | .037 | -.030 | -.031 |

***p< .001, **p< .01, *p< .05

‘학원폭력 피해경험’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수준이 떨어졌다(경로계수=-.193). 여학생들에게는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오히려 ‘학원폭력 문제 의식화’를 약화시키는 억압적 기제로 작용되고 있어 우려된다. 모형에 포함된 4개의 효과변인들(‘전반적 폭력인식’, ‘비주장성’, ‘학원폭력 피해경험’, ‘친사회적 행동성’)이 최종 산물(product)인 ‘학원폭력문제 의식화’를 남·여집단에서 각각 17.3%, 27.2%를 설명하였다.

‘학원폭력문제 의식화’ 외에 또 다른 두 개의 내생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성’과 ‘학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변인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성’에는 ‘전반적 폭력인식’과 ‘비주장성’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폭력’에 비판적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성향이 높아졌고(남, 경로계수=.152; 여, 경로계수=.162), ‘비주장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성향’은 감소되었다(남, 경로계수=-.142; 여, 경로계수=-.138). ‘비주장성’이 높을수록 ‘학원폭력피해’수준이 높았다(남, 경로계수=.057; 여, 경로계수=.140). 내생변인인 ‘폭력피해경험’(남, R^2 .003; 여, R^2 .019)과

‘친사회적 행동성’(남: R^2 .039; 여: R^2 .050)의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비록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친사회적 성향이 학원폭력 피해경험보다 설명력이 약간 높고, 남학생집단보다 여학생집단에서 설명력이 더 높다. 이는 ‘폭력피해경험’보다는 ‘친사회적 성향’의 변화가능성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 변화가능성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간접효과 성별비교

‘전반적 폭력인식’→‘학원폭력문제 의식화’ 경로 그리고 ‘비주장성’→‘학원폭력문제 의식화’, 이 두 경로에서 간접효과검증은 AMOS를 이용해서,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왜곡)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는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전반적 폭력인식’→‘학원폭력문제 의식화’ 경로에서 남학생집단(추정값, .026)과 여학생집단(추정값, .029)에서 모두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표>.

<표> 효과분해와 간접효과 유의성 (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

| | 경로 *()속은 매개변인임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유의도 검증 | |
|-------------|----------------------|------------------|------------------|------------------|----------------------|------|
| | | (표준값) | (표준값) | (표준값) |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 P. |
| 남 학 생 | 의식화←(친사회성)←폭력인식 | .365 (.381) | .341 (.355) | .024 (.026) | .004, .070 | .015 |
| | 의식화←(친사회성·피해경험)←비주장성 | -.044 (-.056) | -.023 (-.030) | -.021 (-.027) | -.063, -.005 | .019 |
| 여 학 생 | 의식화←(친사회성·피해경험)←폭력인식 | .365 (.438) | .341 (.409) | .024 (.029) | .005, .085 | .016 |
| | 의식화←(친사회성·피해경험)←비주장성 | -.062 (-.083) | -.023 (-.031) | -.039 (-.052) | -.109, -.023 | .000 |

자료분석 결과 얻은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과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재기, 2011:110; 김선아, 2007:25-26; 오승환, 2007:93; 신성자, 2005:130; 이영균, 2005:96; 최용민·이상주, 2003:463 재인용; 박창득, 2003:5; 이미리, 2003; 최덕경·강

기정 2001:94)와 합치한다. 남학생의 높은 피해율은 남학생들 사이에 학원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폭력성’을 남성성의 역기능으로 간주하는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조명해볼 수 있다.

둘째, 모형의 전 경로 중에서, ‘학원폭력 피해경험→학원폭력문제 의식화’ 경로에서만 유일하게 성별차이의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gender)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문제 의식화가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는 개인의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폭력행위에 대한 비판력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수준을 높여 학원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화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기대와는 전혀 상치된 결과이다.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학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및 조치와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 및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학교의 미진한 대처는 학원폭력의 허용적인 분위기(climate)를 확산시킬 수 있고, 학생들은 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둔감(desensitization)해 질 수 있다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응답자들 중에는 순수 피해학생도 있지만, 피해·가해 중첩역할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피해학생들 중에서 학원폭력 가해행위를 행한 경험도 함께 가진 학생들이 많았을 경우, 이들에게서 학원폭력문제 의식화를 기대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학원폭력문제 의식화’ 척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학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원폭력 피해경험’척도의 측정지표 내용에 ‘소외형’ 및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폭력유형은 배제되었고, ‘학원폭력문제 의식화’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삽화(vignette)의 내용에도 폭력성이 강한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폭력행위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학원폭력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수동형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수동형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폭력행위가 동반된 학원폭력 가해행위자로 전환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신체적 폭력행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왔다(이영균, 2005:96, 신성자, 2010:15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학원폭력문제 의식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현상과,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학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학원폭력문제 의식화’가 오히려 저조해지는 본 연구결과를 피해자의 가해자 전락현상 또는 피해·가해 중첩역할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학원폭력 발생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사후대처 및 개입의 미진함으로 인해 폭력이 허용적인 학교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원폭력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어렵게 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개입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적인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폭력전반에 대한 인식수준’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친사회적 행동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에 대한 비판의식은 ‘학교폭력문제 의식화’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폭력성이 높은 대중매체(영상물, TV, 인터넷등)가 청소년의 폭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상기할 때, 폭력성이 강한 영상매체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순기능 역할을 하는 영상물의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친사회성’이 향상될 때,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비주장성’은 ‘학원폭력피해’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드러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주장성’이 더 높았다<표>. 이는 남자아이들이 자기주장적이고, 경쟁적이고, 독립적이 되게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을 발달시키도록 장려받는다라는 선행이론가(Eysenk, 2002, 김용희, 2007:575 재인용)들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비주장성 문제가 낮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공감능력이 높기 때문에(김복태, 2001:249),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및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사료된다. 성역할 사회화의 우산아래, 정형화된 성별특성, 즉 남성은 자기주장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므로 비주장적일 것이라는 이분법적 단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특성에 따른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성별특성, 공감능력, 표현기술효능감등)을 고려한 정교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서 이론이 구축되어야 함

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섯째, ‘비주장성’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는 직접효과를 주지 못했지만, ‘친사회적 행동성’을 완전매개로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주장성’은 ‘친사회적 행동성’을 감소시키고, 낮아진 ‘친사회적 행동성’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학원폭력문제 의식화’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비주장성’은 학원폭력 피해발생을 증가시키고,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성’을 억제하는 위험요인(risk-factor)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주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험집단(risk group)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원조개입을 모색해야 한다.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이 ‘비주장성’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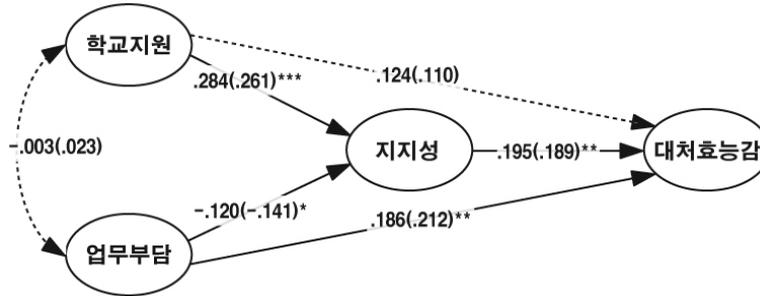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학원폭력 피해경험’도 많고, ‘비주장성’도 유의하게 높은 사실이 밝혀져, 남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개입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직접서비스 제공자 역할’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창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자’(broker), ‘중재자’(mediator) 그리고 ‘사례관리자’ 등 ‘체계연결자’로서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사들은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선정 및 학생 정보제공, 모니터링 역할 그리고 정서적 지원체계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친사회적 행동성’은 ‘학원폭력문제 의식화’를 촉진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적인 기제’(protective mechanism)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친사회적 행동성’ 향상을 위한 모색은 별개의 단독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연구영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공감능력향상’이다. ‘공감’(empathy)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공격성을 감소시킨다(조한익·이미화, 2010:145). 공감의 결과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조력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신경일, 1994; Hoffman, 1982, Eisenberg, 1986, 조한익·이미화, 2010:141 재인용)에서 보고

된 바 있다.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지적 측면에서는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역할수용’(role-taking)과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관점수용’(perspective-taking)을, 정서적 측면에서는 ‘공감적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향상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역할극’(role play), ‘사이코드라마’, ‘영상매체 감상 및 토론’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살핌’(caring)과 ‘양육성’(nurturing)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실제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봉사활동(예: 원예, 애완동물 양육, 시설의 영·유아·노인 돌보기, 학교급식 시간에 음식 도와주기, 노인, 노숙자 등을 위한 무료급식 식사제공 도우미등)을 교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소집단모임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성향’을 향상시키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선행연구(조학래, 1999)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각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대학입시, 학교생활평가에 봉사점수 확대반영, 평가기준 체계화등)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됨의 품격’을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은 등한시되고, 학업성취만이 최고의 교육목표인양 강조되고, 학우들 간에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교분위기를 조장하는 교육풍토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일찍이 Kolberg도 도덕발달이론 제 3단계에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타적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김상윤, 1989, 조학래, 1996:40 재인용). Damon은 자아정체성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기가 그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Damon, 1984, 조학래, 1996:47 재인용). 건강한 감성을 높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가능케 하는 인문학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고전 및 양질의 문학서적, 음악, 미술, 그리고 스포츠 활동등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집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청소년들에게 깊이 내면화되고,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성’이 향상될 때, 학교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r)가 감소될 수 있고, 학원폭력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화’(conscientization)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부담과 학교지원이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 학생간의 지지성의 매개효과와 담임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자료출처, 신성자, 2012a]



***p<.001 **p<.01 *p<.05

각 경로위에 적힌 숫자는 담임집단의 표준화 추정치이며, ()속은 비담임집단의 표준화 추정치임.

자료출처:신성자(2012a)

〈그림〉 담임집단 및 비담임집단 구조모형 비교 분석

〈표〉 담임·비담임 경로추정치

| 최종모형결과 [직접효과] | 비표준화추정치(표준오차) | | | | 표준화추정치 | |
|------------------|---------------|------|---------|-----------------------------|--------|-------|
| | 담임평균 | SE | 비담임평균 | SE | 담임 | 비담임 |
| 지지성← 학교지원 | .261** | .062 | .261*** | .062 | .284 | .261 |
| 지지성← 업무부담 | -.125* | .064 | -.125* | .064 | -.120 | -.141 |
| 효능감←지지성 | .187** | .066 | .187** | .066 | -.195 | .189 |
| 효능감←업무부담 | .187** | .064 | .187** | .064 | .186 | .212 |
| 효능감← 학교지원 | .109 | .059 | .109 | .059 | .124 | .110 |
| 간접효과 | 추정치 | P. | 추정치 | 신뢰구간 95% 유의도(p) 하한값, 상한값 | | |
| 효능감←지지성←지원 | .049 | .006 | .049 | .006 | .017, | .119 |
| 효능감←지지성←부담 | -.023 | .048 | -.023 | .049 | -.074, | .000 |

***p < .001, **p < .01, *p < .05

[자료출처:신성자, 2012a]

〈표〉 담임유무와 잠재평균 차이분석

| 최종모형결과 | 평균차이 (평균오차) | | | 효과크기 d |
|-------------|-------------|--------------|-------------|--------|
| | 비담임 | 담임 | | |
| 학교지원 | 0 | -.007 | .062 | d=.317 |
| 업무부담 | 0 | .179* | .070 | |
| 학생·교사의 지지성 | 0 | .058 | .062 | |
| 교사의 대처효능감 | 0 | .043 | .061 | |

***p < .001, **p < .01, *p < .05

[자료출처:신성자, 2012a]

자료분석결과 얻은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집단분석을 통해 담임집단과 비담임집단의 각 경로추정치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모든 경로에서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담임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4개의 잠재변인들 중에서 ‘업무부담’에서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둘째, 교사의 ‘업무부담’은 교사와 학생 간의 ‘지지성’을 저해하는 반면, 학원폭력대책을 위한 ‘학교지원’은 교사와 학생간의 ‘지지성’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학교지원’은 ‘교사의 대처효능감’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지지성’을 완전매개로 ‘대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학교지원’이 교사의 학원폭력 ‘대처효능감’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지지성’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원폭력 ‘대처효능감’ 증진에 ‘지지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학교체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상호 의미 있는 타자이다.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아닌, 교사와 학생간의 좋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호 지지적인 관계는 학교폭력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보호기제(protective mechanism)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학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효능감’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교사의 업무부담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교사의 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Bandura, 1982, 홍창남, 2006:7재인용; 임성택, 2002)의 주류적 논의내용과는 상치된다. 본 연구 결과를 추론해 보면, 첫째,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개인의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둘째, 교사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요인(Bandura, 1977, 박영신·김의철, 2001:16)으로 알려진, ‘수행성취’ 및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많은 업무경험이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다. 교사의 업무부담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연 교사의 업무부담이 어떤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본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상 논의한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학교지원’(상담연수, 상담실 지원 및 활동강화, 예방 및 대처교육, 전문기관연계, 사례회의 등)이 높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지지성’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교사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다. 교사의 업무부담이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다양한 업무와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교사들 사이의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학교지원’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각 학교 및 개별교사의 특성 및 욕구가 잘 반영된 ‘차별성’을 둔 내용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와 간담회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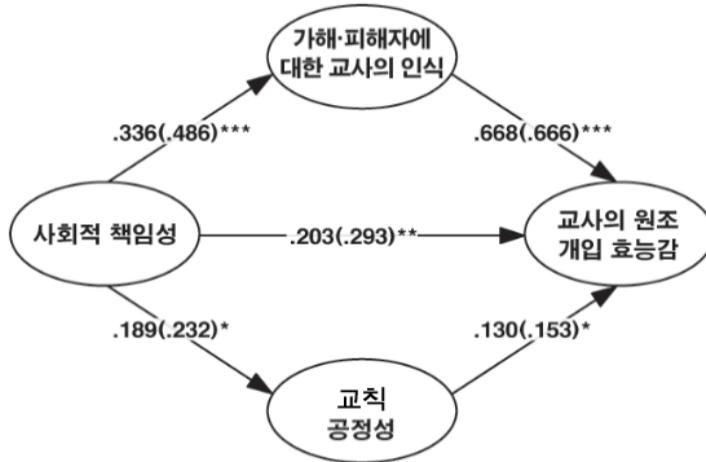
둘째,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입증한 교사와 학생 간의 ‘지지성’의 중요성은 학교폭력 문제 대처에 교사와 학생 간의 지지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는 설득력 이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지지성’의 의미와 가치를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사들의 마음 속 깊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 워크숍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세째, 학교폭력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들의 경험정도와 개입수준은 교사들 개인들 간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원폭력문제에 대처해온 교사들이 자신들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교사들이 학원폭력문제를 다루면서 겪은 개인적인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료교사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원폭력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상호개방하면서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인들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모아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을 위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비선형 분석을 이용한 다중매개 검증을 중심으로 -

[자료출처, 신성자, 2012]



***p < .001, **p < .01, *p < .05, ()속의 숫자는 비표준화 추정치임

〈그림〉 연구모형 분석결과

〈표〉 개별매개, 전체매개, 매개차이 신뢰구간검증 (Mplus 비선형분석결과)

| 간접효과경로 | 표준화 추정치 | 비표준화추정치 |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 |
|----------------------------|---------|---------|-------------------|------|
| 원조개입효능감←교사인식←사회적책임성(M1)원조개 | .224 | .278 | .127 | .628 |
| 입효능감←공정성←사회적책임성(M2) | .025 | .031 | .001 | .097 |
| 전체간접효과(M1+M2) | .249 | .308 | .141 | .656 |
| M1매개효과와 M2매개효과의 차이 | .199 | .247 | .090 | .552 |

***p < .001, **p < .01, *p < .05,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성’과 ‘가해·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교칙 공정성’등 세 효과변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세 효과변인들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약 64%로 대단히 높았다. 교사의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원조개입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사명감’과 ‘가해·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교칙 공정성’ 등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교사의 ‘사회적 책임성’은 학교폭력 ‘원조개입효능감’ 증진에 매우 중요한 교사의 사회심리적 특성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성’은 ‘원조개입효능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해·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교사의 ‘사회적 책임성’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교칙 공정성’에도 긍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의 ‘사회적 책임성’이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세 효과변인이 교사의 학교폭력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452였다.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203)보다는, 두 매개변인(‘가해·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칙 공정성’)의 전체간접효과(.249)의 영향이 더 컸다. ‘교칙 공정성’의 부분매개효과(.025)는 약하였지만, ‘가해·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의 부분매개효과(.224)는 강하여, 가해·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올바를수록, ‘사회적 책임성’이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상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가해·피해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게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후조치·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 또는 재발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한층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의 ‘사회적 책임성’수준에 대한 평가와 가해·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편견 및 오해(myth)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일선교사들에게 보급하여,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 및 폭력 가해·피해당사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교사 자신이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성’이 낮거나 가해·피해학생에 대해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확인하여 이들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표적집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만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역기능이 청소년 학교폭력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권신영, 1998:28; 권이중, 1997:55-57, 이명자, 2004:22 재인용). 인성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은 비단 청소년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되었거나, 학원폭력 당사자 학생들에 대해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재교육 내용에 인성 및 가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사회적 책임성’ 및 ‘가해·피해자에 대한 인식’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함께, 소책자, 사례연구자료 및 시청각영상자료 등 교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과업은 학교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등의 자문을 얻어,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종합대책위원회’와 관련부서, 각 지역 교육청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측정도구 및 교육·홍보자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검증된 측정도구와 자료만이 지적수준이 우수한 직업군인 교사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장은 교사들을 연령 또는 경력에 따라 7-8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하게 하여, 각 소집단 단위로 배부된 교육자료(소책자, 사례집 및 영상자료등)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은 거울효과를 주어 상호인식을 점점·수정할 수 있어, 교사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장은 교사들이 소집단 모임을 통해서 깨달은 실천적 지혜를 나누고, 동시에 실천적 지혜를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년 1-2회 교내 세미

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세째,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칙적용의 공정성이 낮고 일관성이 결여될수록, 학원폭력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원조개입효능감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할 때 교칙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학교행정책임자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주도하는 모니터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교칙의 불공정한 적용의 위험(risk)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교칙의 공정성’에 대한 개별 교사의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discrepancy)는 개별 교사의 개인적 경험과 심리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사건 및 사안에 적용된 교칙의 공정성에 대한 각 교사들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야말로 실천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칙의 공정성’에 대한 학내 교사들간의 인식차이는 ‘열린 토론’으로부터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째,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전문학회(예: 학교사회복지학회)는 지도감독자(수퍼바이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심화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수퍼바이저는 소속 학교 뿐 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원조개입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과 사례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워크숍 내용은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자기개방 등을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증진과, 가해행위에 대한 비판의식고취, 교사자신의 방어기제에 대한 통찰, 학교폭력상황에서의 소극적 대처와 관련된 죄책감 및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 다루기, 그리고 학교폭력 개입에 필요한 실천기술, 리허설 훈련 등의 내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이러한 사전 리허설은 남성교사에 비해 자칫 수동적이기 쉬운 여성교사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취’, ‘언어적 설득’,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은 효능감을 증진시키고(Bandura, 1977, 박영신·김의철, 2001:16), 증대된 효능감은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지각된 장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선행연구(김민선·서영석, 2009:5)를 상기할 때, 워크숍을 통한 사전 연습은 학교폭력 원조개입을 위한 교사들의 실천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현, 왕소정. 2000. “학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및 배척받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연구. 제 27권. pp.85-107.
- 김순기(201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 권이중 (1997). “학교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 광주시 광주홍사단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pp.55-57.
- 문재현(2013).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샘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 박창득. 2003. “초등학교 학교폭력 현상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방기연·이규미(2009). “학급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의 경험과 개입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8(1): 167-188.
- 신성자·정숙희(2010).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과 학생의 개인특성이 신체적, 비신체적 또래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9:141-172.
- 신성자(2011). “남여 중학생의 학원폭력문제 의식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학원폭력 피해경험과 친사회적 행동성이 다중 매개효과 검증을 토대로”. 『한국아동복지학』 36:165-196.
- 신성자(2012).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위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비선형 분석을 이용한 다중매개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1): 79-100.
- 신성자(2012a). “업무부담과 학교지원이 교사의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학생간의 지지성의 매개효과와 담임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30.
- 안석모(201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 장문선(2013). “청소년 자살예방의 실천적 방안모색.”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 이미형 · 임지영 · 이순득 · 오승은. 2009.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인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2): 174-185.
- 김사철(2013).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 조용선(2013). “학교폭력 단속 및 예방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최주원(2013). “경북지역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 부록 연구(1)-(4)의 발췌된 내용에서 기술된 참고문헌은 해당 연구논문의 참고문헌부부를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토론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토론회의 토론 대상과 관련하여

오늘 토론회의 대주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 학교 폭력과 자살 문제를 연결시키는 고리일 수 있겠으나, 사실 양자는 상호 독립적으로 보다 충실히 토론해야 할 대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자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면 말이지요. 혹여 이 소중한 자리가 즉흥적으로 두 개의 주제를 합쳐 만든 행사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대한 의견

우선 오늘 여러 발제문과 발표문을 종합해 볼 때, 논의의 출발점이자 외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2004년 제정되고 최근 제12차 개정되어 20여일 전(2013년 3월23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혹시 이 법률과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제자·발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향후 논의와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제1조1) 목적에서 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자는 여전히 ‘학교폭력’은

1)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발표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는 ‘학교폭력’을 논하면서도, 과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 분들께서는 현행 법률 제2조 제1호에2) 규정된 학교폭력의 개념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넓다거나, 너무 좁다고 보시는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 법률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현행 형법상 중한 범죄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사법제도의 틀 밖에서 미리 다루어짐으로써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고 읽힐 수도 있으나, 현재에도 문제되고 있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처벌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3) 이에 대한 별칙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건, 교사 혹은 학생들이건 신고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고한 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하는 무책임한 규정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아래에서는 발표자분들의 발표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학교 폭력문제는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대책도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그 효과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틀에서 볼 때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쟁문화, 대학입시에서의 무한경쟁, 이에 따른 학교 내의 학생의 서열화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결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성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이러한 교육의 부재가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현재의 대학입시구조 속에서 과연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큰 틀에서의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방지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아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내용도 고려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운영 주체의 관심과 운영방법에 따라 긍정·부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장·단점을 가지는 것이겠으나, 타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를 통한 폭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영미나 유럽의 노력, 성적보다는 생활태도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들 국가의 학생생활기록방식이나 그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비추어, 과연 교과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와 관련한 지침 등이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으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만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비행사적이면서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 미

국식의 Boot camp와 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처벌 이전의 대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 이러한 방법을 비교적 중하고 악성이 높은 학교폭력의 (형사처벌 이전의) 대책으로, 형사벌 이전의 최후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의 현황 및 추진경과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교권추락의 문제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관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법원은 아직도 일정 한도 내에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의 징계(경미한 체벌 포함)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정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떻게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지는 모를 일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권위, 체벌이나 징계 없이도 인정되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일 수 있겠으나, 과연 그러한 권위가 인정되기 위해 일선 학교의 교사분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 상태 하에서도 교사가 바뀌는 것만으로 권위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대구와 경북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학교담당경찰관이 주1회 이상 학교를 순회 방문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방의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찰과 교육기관 간의 관점의 차이도 있겠으나,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의 현재와 같은 인력배치나 업무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학교마다 담당 경찰인력이 상주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학교총기사고로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경험을 겪은 미국의 각주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등에서는 아침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무장경찰이 전담근무를 하고, 심지어 점심시간에 식당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순찰차가 교내에 주차해있고, 경찰이 교내에 상주하면서, 교내와 그 주위를 순찰하는 모습이 학교 폭력예방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요?

5. 학교폭력 단속 및 예방 대책(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소년범의 비범죄화를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즉심·내사종결처분하고 있고, 가능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법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강한 형벌보다 확실한 형벌이 효과적이라는 격언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물론 일반 성인의 형사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재나 형벌이 없어도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여 재사회화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어떤 보호처분이나 행형노력이 있어도 재범과 3, 4범으로 이어지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는 점에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의 발표문에서도 지적되었고, 경찰행정실무자료로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비범죄화 혹은 불기소처분을 원칙으로 처리하는 조치가 학교폭력예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라는 물음도 들어있습니다.

6. 경북지역학교폭력현황 및 예방대책

발표하신 내용 중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그동안의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 조치에 치우친 것이 약간의 문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어떠한 조치(교내절차 혹은 소년보호 혹은 형사절차)가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7.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샘 프로젝트

다른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방관자 유형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학교폭력해결의 중요한 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안학교나 별도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에서도,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에 억눌린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관점과 제언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김정금

학교폭력을 어떻게 볼까?

- 학교와 관련하여 가까운 사람으로 부터 당하는 폭력이
라 일반폭력과 다른 심한 모멸감, 모욕감 동반
-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음
- 장난에서 시작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로 반인륜적인 폐
해를 동반- 어른의 책임
- 교육의 핵심가치와 인권에 반하는 중대한 일
- 교사, 학교, 교육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2세들에게 치명
적인 상처를 남기는 일

- 우리의 학교 교육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일이 될 것
- 일반 청소년 자살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
- 잘 드러나지 않고 사례나 상황이 매우 다양함
 - 통계수치는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음
- 학교 폭력에 의한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은 한 건도 없어야 할 일
- 기존의 폭력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한 시점

학교 폭력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문제

- 학교가 신뢰받고 있지 못함
 - 학교가 끝까지 피해자를 책임져 준다는 신뢰가 없음.
 - 슬로건과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
- 학교의 반 인권적인 분위기-인권의식, 의지 미약함
 - 선후배의 위계
 - 선도부에 대한 불합리한 권한 위임
 - 강제 보충수업
 - 교사 자의적인 상벌점제

- 학교폭력 대처 태도의 문제

- 목인, 방관
-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 가정이나 사회의 문제로 돌린다
- 행정적인 처리
- 교육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본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음

- 학교 폭력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가 아닌 행정 업무로 바뀌어 버림

교육당국의 폭력대책의 문제

- 학교 폭력 자살문제를 보는 교육당국의 가치관에 문제 있음

- 생명의 문제를 통계수치로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사례에서 드러난 가치관 문제 심각해 보임
- 사회 가정, 학부모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경향 보임

- 대책만을 위한 대책

- 정당한가의 문제와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별고민없이 생각 나는대로 나열하고 있는 인상
- 지금까지의 인성교육대책과 별로 다르지 않음

- 이벤트 성 대책
 - 갖가지 MOU 체결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
 - -인권위와 인권친화적인 학교 MOU체결했다고 하나 인권위가 2009년 고정명찰 개선 권고 조차도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음
 - 인권헌장 선포 후 인권헌장에서 명시된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음
 - -학생의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되지 않고 있음

- 학교교육에 대한 월권적인 간섭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살아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
 - 아침독서 10분, 들머리 인성교육
-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 인권적인 일들에 대해 감독의지 보이지 않음
- 교육당국의 대책이 교육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지 않음 -미봉책
-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임

교육당국의 학교 폭력대책을 위한 제언

- 교육당국의 학교 폭력 대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재검토 요구됨
 -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요구를 없애고 필요한 감독기능을
 - 강화할 필요 있음
- 교사, 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교육당국의 감독

- 교육과정의 목적과 방법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파행을 가져오는 교육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잡무, 일제고사 등을 없애야 한다.
 -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이 실제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감독이 일어나야 한다.
 -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학교 폭력행위에 대해 단호한 교육적인 조치와 책임추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의 밀착관계 형성
 - 교육당국은 월권적인 간섭으로 교육활동을 행정업무로 바꾸어버리는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교사가 교육의 기본 원리에 반하거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운영
 - 교육당국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학교 운영, 그리고 학교 폭력을 방임하는 직무 유기에 대해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학교와 교육당국의 사회와의 관계 형성
 - 인권위원회, 경찰, 사회 단체 등에 개방되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과 상호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종 합 토 론

- 아이들이 성장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준비 -

임전수 교사
(대구능인중학교)

저는 이 토론으로 지금의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적

“배우는 아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은 성장이니 몸과 마음이 커가고 아이들은 하루하루 새로운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사회)은 아이들이 무엇으로 배우고 언제 성장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사실 성적표에 수치화된 점수만 가지고는 아이들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도, 아이의 몸짓도, 말하는 방식도 어느덧 달라지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적성과 개성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성적표를 보면 **성적이 나쁜 과목에 더 눈길이 갑니다.** 아이가 겸손하고, 튼튼하고, 우정이 깊은 아이로 자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불어 **성적도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뒤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와 관련해서 집단적인 최면이라도 걸린 듯 합니다. 이 일은 요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회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학원에 다니고 하는 중간에도 서로로서 관계를 맺으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앞뒤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만** 시키는데도 아이들은 자랍니다.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이와 공부**에 대한 맹목적인 집단의식은 어디가 출발이고, 어디로 가고, 누가 조장하는지 따져 볼 일이지만 분명 교육의 큰 걸림돌이면서, 한편으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미래

DeSeCo 프로젝트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앞으로의 세상은

1.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고(컴퓨터와 스마트 폰등 정보화 기기 활용)
2. 보다 큰 맥락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3.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사는(다양한 방식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다원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고 다양한 이론을 이야기 하지만 분명한 일은 세계는 이미 계층과 나이,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단단해 보이는 가치관이나 지식체계, 인식의 방법 등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재방식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변화의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태 그래온 것처럼 끊임없이 문제 풀이를 하고, 학교 밖에서도 사교육으로 또 문제 풀이를 합니다.

배움과 성장

최근의 배움의 이론들에 의하면 어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이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이나 제도로 앞길을 무지막지하게 막지 않는 한 아이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력으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어른들의 책임(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교육적인 환경의 조성)이 더욱 절실한 때가 된 듯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인 지금 우리 학교가 ‘조국 근대화의 역군’을 기르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과 학교

사회 제도로서의 학교이건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이건 학교는 아이들의 삶터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당연히 공동체적인 감수성이 살아있는 공간이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가치가 존중받고 평등한 관계를 배우고 느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판단한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고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도 많은 아이들이 온 삶을 다 던져서 증언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사회는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면 읽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과 대응

우리사회는 어느 듯 학교를 치안의 대상으로 삼고, 아이들을 범정에 세우고 교사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 것은 분명합니다. 인권에 대한 시각도 일정하게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되어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비명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만들어온 교사들의 공문과 상담일지가 쌓이기는 했지만 학교가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대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지체 현상만큼이나 학교가 사회를 충실하게 반영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대책의 다양함 만큼이나 폭력의 양상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면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책은 언제해도 늘 뒤쳐지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도 일정하게는 폭력적인 학교를 숨기려는 의도로 학교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수많은 정책과 관행들이 아이들을 옥죄고 폭력적으로 만들었다는 반성적인 목소리입니다.

많은 대책들 또한 학교와 교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교사들(학교)에게 끊임없이 공문만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아이를 처벌하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간 텅 빈 학교의 교무실에서 상담일지를 적고 또 적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교사와 아이들에게, 또 돌아서 학부모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준비

안석모 국장님의 발제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은

우리 사회의 경쟁문화, 대학입시에서의 무한경쟁, 이에 따른 학교 내의 학생의 서열화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성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족한 교육환경 및 교육체계, 수준별 이동수업, (예체능)집중이수제 등 현실적으로 학생을 경쟁으로 모는 교육 제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에 다 학교와 사회에서 복종적·수동적이기를 기대·강요받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통제적·강압적인 학생지도, 국가·사회·학교·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학생의 폭력이나 부모·교원의 자녀나 학생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일이거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묵인해온 관행 등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는 사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평화로운 학교의 근원적인 구조는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일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선수들**입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건 허무한 일입니다. 사회를 닮아가는 아이들의 관계망과 사고방식은 교육의 근본을 돌아보게 합니다.

비고츠키의 배움의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은 세계와의 대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학교는 입시전쟁의 전사 기르기 작전에서 벗어나 교사들과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를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교육공동체를 이를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가 할 일은 교육적인 틀을 제대로 갖추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

니다.

지금까지 나온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마치 “좁은 닭장 안에 닭 수십마리 집어넣어 놓고 암전히 있지 않으면 두들겨 패려는 일과 같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학교를 차별과 경쟁이 아닌 배움과 성장의 교육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학교폭력 대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안석모 국장님의 제안처럼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하는 일,
- 학생 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하는 일,
- 교원 및 교실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일.
- 행정전담교원제도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제도를 마련하는 일
- 차별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
- 상·벌점을 주기 이전에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하는 일 등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학교를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고, 학교 폭력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으로써 지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종합토론



한국자살예방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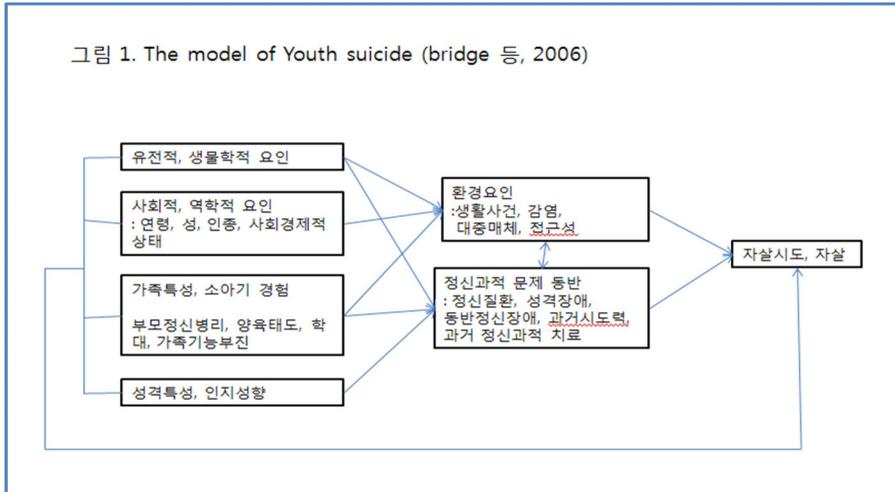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황 준 원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 연혁

-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 2007년 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 실시
- 2008-2012년 제4차 청소년 정책
 - 교과부: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확대
 -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과부 합동: 자살위기 청소년 조기발견-긴급구조-사후관리 통합체계 구축
 - 조기발견을 위해 1588-7179, 1388, 112, 119, 1577-0199 연동
 - 여성가족부, 교과부: 가족상담프로그램강화
 - 복지부, 여성가족부: 자살예방홍보 및 생명존중 캠페인

청소년 자살의 주요 요인

그림 1. The model of Youth suicide (bridge 등, 2006)



자살 예방전략

Primary psychiatric preven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ark O'Leary, Ph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York, NY, USA
Gregory Stolter, MD
David Zisler, MD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iatry
Brooklyn, NY, USA
Subrotojit Mukherjee, MD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iatry
Brooklyn, NY, USA
Dr. John F. Edelbrock Hospital
Department of Psychiatry
Brooklyn, NY, USA

| 주요 요인 | 가능한 개입 |
|-------------------------------|---|
| 기존 정신건강문제/ 물질남용 | 사례발견 잠재적 우울증/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의뢰 및 치료 학교 전체의 선별 교사/ 관련인력의 교육 |
| 스트레스 | 위기개입서비스 위기/응급 전화 |
| 학교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법적 문제 | 사회기술/ 대처기술 훈련 상담교사/ 보건교사/ 정신건강 담당교사 연수 |
| 자살도구/ 흥기에 대한 접근도 | 적절한 법적 조치로 음주/ 약물/ 기타에 대한 접근도 제한 |
| 자살의 '전염성' | 대중매체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

외현화 장애 예방전략

Primary psychiatric preven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ark Olfend, Ph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York, NY, USA
Doreen Smith, MD
David Zerkow, MD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iatry
Brooklyn, NY, USA
Subroto Ghosh, MD/PhD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iatry
Brooklyn, NY, USA
Dr. John's Episcopal Hospital
Department of Psychiatry
Forth Worth, TX, USA

| 주요 요인 | 가능한 개입 |
|--|---|
| 공격성, 충동성 대인관계 곤란 사회기술 부진 | 분노 조절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긍정적인 역할 시범보이기 사회기술증진 프로그램 |
| 모아 상호작용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부족한 부모 지지 | 임산부에 대한 지지 의학적/ 정신건강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 모아 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훈련 |
| 학업 수행 부진 또래/ 교사로부터의 지지 | 긍정적 행동 증진 대처기술 훈련 충동과 압력 조절 기술 훈련 |

ORIGINAL ARTICLE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2;23:23-30

http://dx.doi.org/10.5765/jacap.2012.23.1.23

청소년징사행동발달검사 표준화연구 자료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 전국유병률 및 관련요인 조사

방수영¹⁾, 유환익²⁾, 김지훈³⁾, 김봉석⁴⁾, 이영식⁵⁾
안동현⁶⁾, 서동수⁷⁾, 조수철⁸⁾, 황준원⁹⁾, 만건호¹⁰⁾

¹⁾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²⁾서울과학기술대학교
³⁾부산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신과학교실, ⁴⁾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⁵⁾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⁶⁾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정신과학교실,
⁷⁾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⁹⁾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정신과학교실, ¹⁰⁾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Table 3. Demographic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bullying experiences during 1 month period

| | Non-victim (n=1594) | Victim (n=649) | Statistics |
|----------------|------------------------|-------------------|---------------|
| Age (mean, SD) | 15.28 (1.73) | 15.06 (1.73) | p=.005 |
| Gender (n, %) | | | Chi-square |
| Boys | 761 (67.3%) | 370 (32.7%) | =15.85, df=1, |
| Girls | 833 (74.9%) | 279 (25.1%) | p<.001 |

Table 2.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of bullying

| Answer | Physical abuse | | Exclusion | | Bullying | | Suicidal Idea | |
|--------------|----------------|-------|-----------|-------|----------|-------|---------------|-------|
| | n | % | n | % | n | % | n | % |
| No (0) | 1769 | 78.3 | 1971 | 87.1 | 2008 | 89.0 | 1956 | 86.1 |
| Yes | | | | | | | | |
| Minimal (1) | 333 | 14.7 | 224 | 9.9 | 184 | 8.2 | 239 | 10.4 |
| Moderate (2) | 112 | 5.0 | 53 | 2.3 | 45 | 2.0 | 57 | 2.5 |
| Severe (3) | 45 | 2.0 | 14 | 0.6 | 19 | 0.8 | 17 | 0.7 |
| Total | 2259 | 100.0 | 2262 | 100.0 | 2256 | 100.0 | 2266 | 100.0 |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 Grade | Boys | | Girls | | Total |
|-------------------|------|------|-------|------|-------|
| | n | % | n | % | |
| Middle school | | | | | |
| 1 st | 218 | 47.0 | 246 | 53.0 | 464 |
| 2 nd | 226 | 49.5 | 231 | 50.5 | 457 |
| 3 rd | 149 | 48.9 | 156 | 51.1 | 305 |
| High school | | | | | |
| 1 st | 250 | 63.1 | 146 | 36.9 | 396 |
| 2 nd | 136 | 40.7 | 198 | 59.3 | 334 |
| 3 rd | 169 | 53.5 | 147 | 46.5 | 316 |
| Area | | | | | |
| Seoul | 176 | 50.7 | 171 | 49.3 | 347 |
| Gyeonggi-do | 257 | 44.4 | 322 | 55.6 | 579 |
| Metropolitan city | 207 | 66.8 | 103 | 33.2 | 310 |
| Other area | 508 | 49.0 | 528 | 51.0 | 1036 |
| Total | 1148 | 50.5 | 1124 | 49.5 | 2272 |

청소년징서행동발달검사 표준화연구 자료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 전국유병률 및 관련요인 조사

방수영¹⁾, 유환익²⁾, 김지훈³⁾, 김봉석⁴⁾, 이영식⁵⁾
 안동현⁶⁾, 서동수⁷⁾, 조수철⁸⁾, 황준원⁹⁾, 만진호¹⁰⁾

¹⁾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²⁾서울뇌과학연구소,
³⁾부산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정신과학교실, ⁴⁾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⁵⁾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⁶⁾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정신과학교실,
⁷⁾서울특별시 이천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⁹⁾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정신과학교실, ¹⁰⁾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Table 5. Frequencies of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he school bullying experiences during 1 month period

| Suicidal idea | School bullying | | | | Total | |
|---------------|-----------------|------|--------|------|-------|------|
| | Non victim | | Victim | | N | % |
| | N | % | N | % | | |
| No | 1455 | 91.3 | 479 | 73.8 | 1934 | 86.3 |
| Yes | 138 | 8.7 | 170 | 26.2 | 308 | 13.7 |
| Total | 1593 | 100 | 649 | 100 | 2242 | 100 |

Table 4. AMPQ-II total scores, subscale scores and SCL-90-R scores according to the school bullying experiences during 1 month period

| | School bullying | | | | p value* |
|---|-----------------|-------|--------|-------|----------|
| | Non victim | | Victim | | |
| | Mean | SD | Mean | SD | |
| AMPQ-II | | | | | |
| Total score (student) | 11.09 | 8.50 | 21.05 | 11.70 | <.001 |
| Factor 1 (worry and thought) | 2.98 | 3.11 | 2.60 | 4.20 | <.001 |
| Factor 2 (mood and suicide) | 3.56 | 3.38 | 5.79 | 4.14 | <.001 |
| Factor 3 (academic and internet related problems) | 2.84 | 2.03 | 4.01 | 2.38 | <.001 |
| Factor 5 (rule violation) | 0.24 | 0.70 | 0.63 | 1.37 | <.001 |
| Total teacher score | 2.55 | 2.99 | 3.22 | 3.36 | <.001 |
| SCL-90-R | | | | | |
| Somatization | 3.60 | 4.59 | 5.60 | 5.61 | <.001 |
| Obsessive-compulsive | 5.85 | 5.34 | 8.68 | 6.35 | <.001 |
| Interpersonal sensitivity | 4.40 | 4.59 | 7.51 | 5.92 | <.001 |
| Depression | 19.54 | 24.05 | 37.24 | 32.68 | <.001 |
| Anxiety | 2.58 | 4.14 | 4.93 | 5.54 | <.001 |
| Hostility | 2.12 | 2.83 | 3.98 | 3.96 | <.001 |
| Phobic anxiety | 0.86 | 1.86 | 1.82 | 2.77 | <.001 |
| Paranoid ideation | 1.57 | 2.61 | 3.67 | 3.56 | <.001 |
| Psychoticism | 1.64 | 3.36 | 4.19 | 5.61 | <.001 |

* : student's t test. AMPQ-II :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청소년징서행동발달검사 표준화연구 자료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 전국유병률 및 관련요인 조사

방수영¹⁾, 유환익²⁾, 김지훈³⁾, 김봉석⁴⁾, 이영식⁵⁾
 안동현⁶⁾, 서동수⁷⁾, 조수철⁸⁾, 황준원⁹⁾, 만진호¹⁰⁾

¹⁾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²⁾서울뇌과학연구소,
³⁾부산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정신과학교실, ⁴⁾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⁵⁾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⁶⁾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정신과학교실,
⁷⁾서울특별시 이천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⁹⁾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정신과학교실, ¹⁰⁾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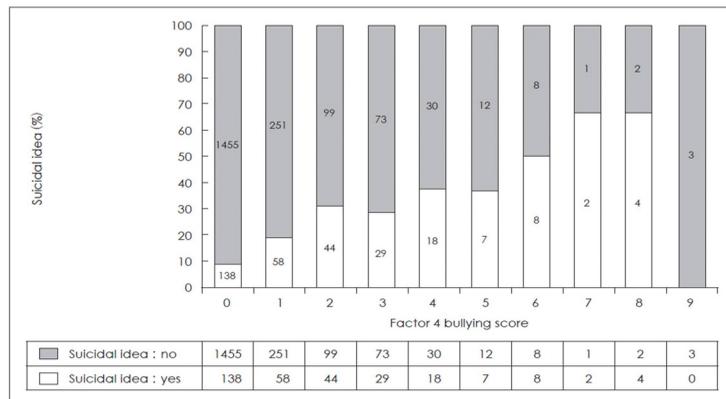


Fig. 1. Frequencies of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he Factor 4 Peer relation (bullying) score

OECD 국가들의 성공적 학교폭력 대응의 특징 (Shaw, 2004)

-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
- 관련자의 고립/격리보다 사회적 지원 및 융합
-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 일반학생용 프로그램, 취약학생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취약학교 선정 및 지원
-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학생이 참여
- 학교 문화의 특수성에 중점을 둔 중재나 갈등해결 프로그램

○ 종합적(Comprehensive) 접근법과 단편적(Non-comprehensive) 접근법의 특징 (Shaw, 2004)

| 구분 | 종합적 접근법 | 단편적(비종합적) 접근법 |
|---------|--|---|
| 일반적 특징 | - 학교와 지역 사회간 광범위한 파트너십 형성 - 권력적 제재 -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설정하나 접근방식은 유연 - 단기적, 장기적 목표 모두 설정 | - 제한적, 학교안에서만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1개 또는 2개 외부 기관과 연계 - 파트너십이나 타기관과의 공조 없이 프로그램을 하향식으로 전달 |
| 목표 | - 괴롭힘, 폭력, 학대, 학살, 자살, 자해, 자살 시도는 예방, 갈등해결방안 개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전반적 건강 및 학교 문화 개선 등 구체적 종합적 목표 설정 | - 폭력 예방, 약물중독 예방, 무단결석 예방 등 1개 또는 2개 목표 설정 |
| 파트너십 | - 교원, 행정직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 경찰서, 지역단체(경찰, 청소년, 가족, 건강, 사회복지관련)간 파트너십 형성 | - 학교 관계자뿐만 구성, 학부모나 지역 사회 참여 배제하거나 외부기관과 제한적 연계 |
| 과정 | - 문제의 내용 평가 - 행동계획 개발 - 실행계획 - 상시적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수립 - 방안 조정 및 수정 | - 발견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하지 않음 |
| 타겟 지역 | - 학교 안과 밖, 학교 인근 지역 일대 모두 - 학교 일과 시간 및 방과 후 모두 | - 학교부기 안에서만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만 해당 - 학교 일과시간만 해당 |
| 타겟 프로그램 | 학교내 지원센터 등을 통해, - 갈등해결 절차 및 처리절차 - 피해자 지원 서비스 -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 교사 지원 및 훈련 - 안전 계획 및 상황적 지원 - 이웃사회와 연계 | - 특정 학생 또는 일반 처리절차에 한하여 심벌, 안전, 보안시스템, 상황적 반응에 초점 |
| 이론적 배경 | - 학교와 학교 공동체, 학생, 가족을 더 넓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양상의 일부로 보고, 체계의 원인을 파악-구조주의 모델 등 | - 사회적 학습 모델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 행동에 주로 초점을 둠 |

종합 및 제언

- 학교폭력, 자살, 학생정신건강문제의 상호관련성
- Unmet needs:
 - 학생의 stress manage 지원
 - 학생의 사회기술/ 대처기술/ 분노조절기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인지하는 기술/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등의 program 개발, 현장도입
 - 자살사안과 관련된 매체의 보도행태 개선
 - 취약계층의 영유아기 지원
 - 학생 위기관리 인적 토대 구축
 - School counselor, school social worker, school psychologist, school nurse, attendance secretary, attendance officer, school resource officer, school police, school doctor ...
 - 학생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대안교육의 활성화
 - 사안 발생 시 Psychological autopsy 의무화
 - 정신건강 관련 편견/낙인에 대한 campaign



종합토론

- 청소년 자살 예방의 실천적 방안 모색 -

박태환 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 모색

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실시

- 일반 학생 및 학부모 담임교사와 상담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설명회 학기당 1회 이상 개최
- 전교학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학교장의 훈화 실시
- 교장실 문턱 낮추기와 순회지도 강화로 학생들과 교감 확대
-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우울·ADHD 등 상담 실시

나. 좋은 학부모되기 교육기회 확대

- 유명강사나 교수 초빙 학부모 기회 확대
-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안내

다.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와 그에 따른 지도 철저

- 초등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학년 초 온라인 검사로 학생 실태 파악
- 관심군 학생 유형별 상담 실시 및 전문 평가 의뢰
- 위기학생(자살, 우울 등 고위험군) 발견 등 조기개입 관리

라. 위기관리위원회 구성과 위기학생 최소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위기학생 상시 관리
 - 심층적 공감과 정서적 지지 형성
 - 원인 제거 노력과 상담일지 기록
 -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 및 협조 체제 구축
- 자살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대처와 사후 관리
 -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결정과 신중한 언론 대처
 - 악성루머 예방 및 확산 방지
 - 유가족 및 친지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치유

마. 자살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강화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교육 강화
- 담당교사 교육으로 지도능력 향상 도모
- 자존감과 생명존중의식 고취

바. 학생정신 관련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 긴급의료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선의료 치료가 가능한 제도 마련

사.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로 개인의 자질 개발 기회 제공

- 양서 읽기 교육 등을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고취
- 예술교육 강화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 1인1악기 교육, 1학교 1합창단 운영 지원
-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함양과 건전한 정서함양

자.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 등 자녀와의 소통 기회 확대

- 건전한 스포츠 참여문화 정착

-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
- 자기사랑 가족사랑을 통한 협동심 애교·애향심 고취
- 학생정서 순화
- 학교간 우수사례 공유

자. 자살 사건 발생 시 언론 보도 자제 요청

- 무절제한 언론보도로 학습 불안 조장과 자살 전염의 위험성 확산 우려 대책 강구
- 유가족을 비롯한 친지 등의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심화 우려 대책 강구
-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촉구

카. 위기 상담 가능 24시간 전화상담센터 홍보 강화

- 자살예방센터 및 전화상담센터: 1577-0199
- 한국청소년 상담전화: 1388
- 한국생명의 전화:1588-9191
- 보건복지콜센터:129

위에 열거한 실천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정책과 제도가 시시때때로 너무 자주 바뀌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지만, 일선현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위학교의 교육에 대한 자율적 재량권이 보장되고, 교권이 확립되어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여전히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유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한 연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조와 지원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교권이 확보되어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교육현장이 본연의 교육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학교는 교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육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가질 때 활기가 넘치고, 따라서 아이들도 선생을 존경하게 되고 동시에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

다. 그렇게 될 때, 학교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자살에 대한 예방도 가능해질 것이다.

2. 가정과 연계한 실천적 방안 모색

- 가. 부모는 자식 앞에서 솔선수범, 언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아이들은 어른이 하라는 대는 안 해도 하는 대로는 한다).
- 나.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아준다.
- 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 라. 고난과 시련을 극복,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도 본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깨우쳐 준다(공자, 예수, 석가, 이순신, 세종대왕, 성철스님, 김수환 추기경, 오프라 윈프리 등).
- 마.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바. 가족회의의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바. 좌절과 포기를 모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로 활기찬 가정을 꾸린다.
- 사. 자식을 깊이 신뢰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믿는 만큼 아이는 성장한다).
- 아. 자녀지도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조화롭게 분담해야 한다.
- 자. 틈나는 대로 부모가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노릇하기가 힘든 세대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아이들이 어른들(부모)보다 자료검색 능력이 뛰어나,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모를 불신 내지는 무시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에 장기적으로 노출, 인내심과 극기력이 약해지고 나아가 자기관리능력이 떨어져 아이들 지도가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 둘째, 자녀지도 방법의 무지를 들 수 있다. 부모는 최초, 최고의 교사라 하였는데, 핵가족에다 맞벌이 부부로 바쁜 생활을 하다보니, 자녀의 지도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없다. 문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학부형이 존재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핵가족과 저출산으로 등으로 자연 하나뿐인 아이들과잉보호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는 이기심 많은 나약한 아이가 되기 쉽다. 인간관계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결여, 사회적응이 어렵게 된다. 넷째, 과거 농경사회에서처럼 아이들이 부모의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부모에 대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 나아가 효도할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무한경쟁, 속도세상, 복잡다단한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 사이 소통이 부재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기회가 없고, 또한 부모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부모구실하기가 어려운 세상인 만큼, 사회제도적으로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통해 좋은 부모, 자유롭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때,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자살을 포함한)가 해결될 수 있다.

최초, 최고의 교사는 부모요, 가정을 최초, 최고의 학교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가능능력 체감의 법칙’이나, 대학의 3강령 중 명명덕(明明德) 항목에서 사람이 천부적인 명덕을 얼마만큼 지니고 사느냐야 따라, 사람을 성인(聖人), 현인(賢人), 사인(士人), 범인(凡人)이라 구별한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그만큼 가정에서의 올바른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보육원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초등교육으로 이어져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수가 강화되어 교원들의 능력과 수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중학교나 교육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 청소년 교육, 아니 평생교육까지 포함하여 모든 교육은 가정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만 그 책임을 묻거나,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효율성을 바랄 수 없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함께 이 문제를 푸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종합토론

-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원인과 예방 대책 -

윤석준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1. 학교폭력의 원인 및 해결책

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적 행동이란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시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집단 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폭력이 특별한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폭력은 그 후 또래간의 폭력행위는 집단에 의해서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는 의미를 포함시켜 ‘괴롭힘’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고, 오늘날 유럽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 학업집중곤란, 학교적응 문제, 스트레스 등의 발달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비사회화, 비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갈수록 다양한 양상으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원인 또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1) 개인 심리적 요인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인 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발달단계로서 인격형성과 생활양식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제2의 성장기로 빠른 신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하며, 그로 인하여 때론 독립적인 욕구도 높아진다. 특히 공격성이 강하게 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반사회적 행동으로 힘을 행사하여 폭력행위를 가중시키게 된다.

청소년기의 정서불안은 정서장애로 이어져 반항적이고 충동적이고, 파괴적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된 가치관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조장하며 정의감, 도덕심, 공명심이 부족한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되어 가해학생들은 바람직한 규범과 도덕윤리의식의 내면화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 결국 폭력행위에 이르는 요인이 된다.

(2)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은 사회의 기초집단으로 학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자녀에게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품성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청소년의 성격, 가치관, 도덕성, 행동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핵가족화, 결손가정, 이혼가정의 급증으로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늘날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점점 교육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여,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되는 아이들은 고독하고 정서적으로 빈곤하여 비행에 빠져들기 쉬워진다. 가정적 요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다수 연구에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그 자녀가 비행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사회학자의 지적이 많았다.

즉 하위층 가정의 청소년 가운데 부유한 가정의 학생에 대한 일종의 증오심 같은 것이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 또는 무관심한 태도와 일관적이지 못한 훈육차원의 체벌, 특히 교육적이지 못한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며 결손가정 및 경제적 빈곤 또한 가정환

경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학교 환경적 요인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아짐에 따라 학령기에 속한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학교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요인을 청소년 자신과 가정환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학교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청소년 폭력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커지고 보다 조직화되며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수단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 조직은 점차 관료화되고 형식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약화되고 문제점과 역기능을 야기했으며, 특히 현재 학교환경은 주입식 지식위주 교육, 시험성적에 의한 단편적 평가, 인간적 고려가 어려운 대형학습, 창의성과 탐구적인 교육이 아닌 획일화된 교육풍토,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한 중압감, 시험후의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시험횟수의 과다 등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정신병 및 자살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부가 전부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느끼는 소외감이 증가되었으며 이의 보상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심리 정서적 치료, 환경조사, 관찰지도 등 치료프로그램이 요구되나 학교의 명예,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중징계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중퇴당한 중·고등학생은 예민한 시기에 심한 충격을 받고 그를 보상하기 위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와 정서적 교육환경의 부재가 괴롭힘 등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사회 환경적 요인

지역사회는 가정 및 학교와 함께 청소년의 중요한 생활의 장이다. 특히 요즘 지역사회의 환경이 특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자주 다니는 곳에 술집, 풍기문란 업소, 유흥가 등의 유해환경이 즐비하여,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한다.

만화방, 비디오방, 키스방 등 향락산업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유혹과 허영심을 부추기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동료학생들로부터 금품갈취나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 씨클에 가담하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이 강한 시기로 방송매체, 인터넷,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의 증가로 폭력의 모방과 학습이 간접적으로 경험되어 폭력장면의 주인공을 미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학교폭력의 해결책

첫째, 현재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정부 각 부처에서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정책 진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혼란과 정책의 중복성을 재정비하여 청소년 학교폭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 간 혼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교육부, 청소년 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정책조정 정부대책 기구의 설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전시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체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시책 추진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공개하고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숨기는 것은 미연에 예방하고 해소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모든 교사들이 연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정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담, 심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사전진단과 사후 문제 처리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학교 내의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은 제1차적 사회 환경이고 동시에 성장 후에도 그 생활의 기본으로 기능하는 사회구성원의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 교육적, 보호적 기능이 청소년 성장과 완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

능의 수행여부와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인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법 및 자녀의 고민과 욕구불만의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는 현존 인적·물적 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협력적인 추진 및 네트워크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운영권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예방교육에 대한 지역자원 참여 및 시스템 구축과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라. 결론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와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 교사와 학부모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 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의 학교폭력 대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효율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이고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들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없는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기능의 회복과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분위기 조성, 그리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과 학부모, 교사, 청소년 지도자 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자살 원인과 예방대책

가. 배 경

최근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며,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개인, 가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 행위를 함으로써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대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나.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첫째,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상태에 있으므로 아동과 같이 의존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않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반면에 부모나 성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고 또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상의 청소년기의 궁극적인 과업은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이며, 거대한 사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위기는 정체감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혼란스러운 모습이나에 따라 만족스럽거나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어느 시기보다도 강하다. 그러므로 또래집단에 속하지 못할 경우 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15세 이후 청소년의 자살 위험률을 높인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류 학교에 가기 위하여 치열한 학업 및 입시경쟁에서 오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성적부진, 입시문제, 진로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고민 등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청소년들 자살의 정신역동은 대학입학시험에 고교 내신 성적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고교 재학기간 중 치르는 시험은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 칠 때마다 입시와 유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입시 실패를 곧바로 인생 실패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

은 결국 청소년 자살률을 부추기는 결과이다.

셋째, 최근 들어 가족 간의 유대가 느슨해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 가정은 청소년에 대한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 기능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에 갈등이 심하거나, 부모가 우울, 약물, 알코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자살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와 극단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낮은 자존심, 낮은 사회적 지원, 권위에 대한 도전, 높은 스트레스,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 알코올과 약물남용 등과 관련 되어진다.

넷째, 자살을 보는 태도의 변화가 청소년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자살이 상세히 보도되거나, 자살이 미화되고, 문제해결방법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은 자살 충동을 높인다. 대중매체 역시 청소년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다. TV 또는 신문의 자살에 관한 보도는 청소년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중매체에서 자살 기사를 크고, 생생하게 다룰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책이나 TV에서 묘사된 자살 사건은 청소년들에게 자살을 특이한 사건이 아닌 친숙하고 일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매체에서 묘사되는 자살 사건은 현실과 가상에 대한 구분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자살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게 하여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접한 자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자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에게서 모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1) 청소년 자신에서의 자살예방

첫 번째로, 청소년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 및 대처기술의 증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여기에서 자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충동에 대하여 스스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심호흡으로 충동을 조절한다거나

숫자를 정해두고 이 숫자를 스스로 반복하도록 하는 훈련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행동(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인지적으로 과거에 즐거웠던 경험을 스스로 기억하여 자살생각에 맞서게 하는 인지교정 훈련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자기조절을 통해 적개심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화가 나거나 흥분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더불어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되짚어 본다거나 “나는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등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구, 상담원 등 자신을 이해해 줄만한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네 번째, 글쓰기, 음악 감상 등으로 기분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주저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2) 가정에서의 자살예방

자살 경고 신호가 느껴지면,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시도한다. 청소년들이 ‘인생은 허무하고, 쓸모없는 거야!’,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라는 등의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면, 자살 경고 신호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갑작스런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등도 자살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이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발견했을 때는 부드러운 대화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도 후속 조치를 위해선 필수적인 일이다.

자살 경고 신호가 발견되면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한다. 자녀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다고 해서 절대로 욕박질러서는 안 된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니?’,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구나!’ 등과 같은 말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그들의 문제를 경청해 주어야 한다. 혹, 자녀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수립했다면, 자살행위가 가능한 방법이나 수단, 또는 도구(약물이나, 흉기 등)등을 제거한다.

(3)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첫 번째로,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한다.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은 주입식 지식을

전달하고, 입시부담에 시달리도록 하며,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실패자라는 인식을 주어 위기상태로 몰아간다. 공부 위주의 학교 풍토를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친구들과의 갈등과 가정의 문제, 진로문제를 상담해 주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담을 통한 교사의 긍정적인 지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원조한다.

세 번째로, 또래집단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의 자기평가 기준은 많은 부분이 또래들 사이의 관계를 따라 형성되기도 한다. 자신이 한 집단의 일원이고, 다른 성원들로부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으며 애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안전감과 행복감을 가지게 되지만, 성원들로부터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위기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의 역동성을 관찰하여 긍정적인 관계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또래 상담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4) 사회에서의 자살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적어도 60-90%의 자살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가졌다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시기에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예방책임을 시사한다. 고위험군의 색출과 관리, 학교당국,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등에서는 이미 알려진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아내어 특별한 상담과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위험군은 주요우울증, 과거 자살시도자, 가족 중 자살자가 있는 경우,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약물남용자, 가정불화가 심한 청소년,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학생, 입시실패자 등이다. 자살은 궁극적으로 절망감과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궁극적 무기력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서적 지지체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자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 결 론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이해하기 전에 청소년의 감정과 특성 등을 이해하여 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애정과 격려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교사는 또래집단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가 위기에 놓여있는 자녀와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시련이 극복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이발래 팀장

(국가인권위 법제개선팀)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접근방법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경쟁문화, 대학입시에서의 무한경쟁, 이에 따른 학교 내의 학생의 서열화, 그리고 학생의 기본적 인성 및 교육환경 및 교육체계, 수준별 이동수업, (예체능)집중이수제 등 현실적으로 학생을 경쟁으로 모는 교육제도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동의
- 학교폭력 행위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에 조력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를 역할 유형에 포함하여 접근하는 것은 평화샘 프로젝트와 일맥상통
- 또한 학교폭력은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2. 정책과 실적 그리고 현실

- 학교폭력 발생 및 학생 자살 현황을 통계청 조사에 따라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시도와 비슷비슷하다 또는 전국 평균수준이다’ 라는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안주하는 듯한 문제의 인식은 부적절함
-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이러하다보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자살은 끊임없이 발생

- 수많은 정책과 그에 대한 실적은 인성 중심 교육(14개 실적),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생활지도(20개 실적), 자존감 회복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으로(3개 실적), 관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8개 실적), 학교만의 교육에서 지역공동체 교육으로(12개 실적) 그리고 2013년 7개의 계획
- 위와 같은 정책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자살이 현존하고 있다면, 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학교폭력과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면 위 정책에 대한 과도수정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문제의 진단을 잘못된 것이 아닌지?(이상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학교폭력 근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풍토의 조성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학교폭력 근절의 어떤 한계가 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도움이 필요한지?(경상북도 교육청)
- 왕따 문제, 위기 청소년 문제, 학원에서의 폭력 문제, 기숙사 폭력 문제, 일진 문제 등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CCTV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 다만,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평화샘 프로젝트는 완결한 것인가? 평화샘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로서 교실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정책이 입안된다면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이상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3. 자살예방정책의 평가

- 자살의 실제 원인과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몇몇 기관과 단체들에서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움4)
- 자살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단계 이전부터 평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4) 홍진표 외,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가천의과학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244면. 참고로 미국은 자살예방 문제로 지출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에만 사용된 바 있음. 평가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된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에는 기존 자살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자살예방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자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예시 : 단계별 주요 내용]

| 구분 | 준비 및 개발 단계 | 이행 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 기관/단체 초기회의 조직 - 기본원칙개발 및 대외공표 -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법령 근거 마련 - 부서별 세부계획 작성 - 집행기관간 공조 유지 - 집행기관의 정책 실행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언론홍보 전략 - 인권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단계 - 계획목표의 수정 및 조정 - 시민사회 의견 수렴 - 협의 및 연계망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단계 - 수립 계획 확정 - 공청회 및 청문회 - 우선순위 등 파악 - 타정책 계획과 연계수립 -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단계 - 평가보고서 구성 - 차기 계획 수립 준비 - 차기 계획 수립 지원 - 새로운 분야 기초 조사 |
| 자문 기관 | 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 | 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 | 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 |

4. 자살예방법에 따른 유기적인 관계 등

-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령이 기존의 자살예방종합대책과 함께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되어야 할 것임.
-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가족들은 자살시도 사실을 완강한 부인하거나 외면하였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기대하고 있음.
- 자살예방사업을 중앙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와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필요하며,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해야 할 것임

토론회 참석 확인서

2013년 4월 10일 개최된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참석에 대한 사례비 등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 4. 10.(수) 13:30 ~ 18:30
- 장소 :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3층)

2. 참석자 확인

- 성명 :
- 소속기관 :
- 주민등록번호 :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서명)

2013. 4. 10.

※ 상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참석사례금 지급을 위해 국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입력자료로 이용되며, 동 시스템 내에 일정기간(5년) 보관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공동토론회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 인 쇄 | 2013년 4월

| 발 행 | 2013년 4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30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48-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